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에겐 내력이 있고 우리에게겐 사연이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에겐 내력이 있고 우리에게겐 사연이 있다

| 탐방국 | 일본 나가사키현 일대 답사

| 탐방일시 | 2019년 6월 26일(수) ~ 30일(일), 4박 5일 간



세종사이버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21 무방관 410호 학생지원센터  
TEL 02-2204-8007





# CONTENT

01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참가자 명단 .....	4
02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기 .....	5
03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	21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참가자 명단

연번	구분	학과	이름
1	학생	경영학과	김유근
2	학생	군경상담학과	최일범
3	학생	부동산경매중개학과	윤광선
4	학생	부동산경매중개학과	서영옥
5	학생	사회복지학과	김창식
6	학생	사회복지학과	방재혁
7	학생	사회복지학과	박은서
8	학생	사회복지학과	신종희
9	학생	사회복지학과	박형순
10	학생	상담심리학과	박희영
11	학생	소방방재학과	김은희
12	학생	조리·서비스경영학과	나순녀
13	학생	청소년코칭상담학과	장순옥
14	학생	청소년코칭상담학과	신정원
15	학생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서준원
16	학생	한국어학과	구영일
17	학생	한국어학과	김인숙
18	학생	한국어학과	박미희
19	본부	학생지원센터장	한숙영
20	본부	학생지원팀장	한재일
21	교직원	교무팀장	김중수
22	교직원	영상제작팀	박병용
23	홍보대행사	촬영·기록	정헌재
24	홍보대행사	촬영·기록	ARTHER ZOZIMO TEIXEIRA DIAS

## 발대식



지난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세종사이버대학교의 무방관에서는 2019 해외문화탐방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이 더웠지만 시원~한 음료들과 다과들이 준비되어 있어 지친 몸에 에너지를 바로 충전할 수 있었죠

발대식 장소의 문을 열자 반겨주시는 한재일 팀장님~  
이 날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안내와  
일정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해주셨습니다  
이후 해외문화탐방에서도 동행하시며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 힘써주신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학우 분들도  
처음 만난 학우 분들도 밖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  
약간 어색어색했답니다~  
그래서 준비한 아이스브레이킹 타임~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서로 학과가 무엇인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이번 해외탐방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가는지  
짧지만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서로 수업을 듣는 지역과 학과는 달랐지만  
금방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문화탐방의 일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보죠!



2019 해외문화탐방은 일본의 나가사키현 일대를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6월 30일  
까지 가는 4박 5일의 짧지 않은 일정으로 다양한 곳을 보고 올 수 있어 벌써 기대가 됩니다.

크게는 나가사키현 일대의 문화유산을 만나보고 시모노세키 일대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일본문화 탐방시간, 군함도,  
다키시마 탄광, 나가사키 조선소 등 일제 강제징용현장을 답사하는 우리의 지난 역사 답사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군함도 방문이 이번 해외문화탐방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많은 학우분들도 군함도 답사를 가장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1탄 [역사 속 그곳]

### 1일차 (쿠시다 신사 > 후쿠오카 형무소 >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

6월 26일(수)부터 30일(일)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와 18명의 학우 분들이 해외문화탐방을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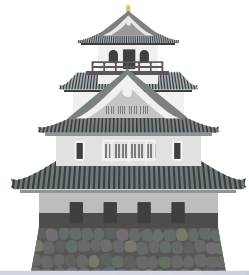
4박 5일의 짧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정말 눈 깜짝할 새 해외문화탐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버스 안에서는 아쉬움을 잔뜩 담은 대화들이 오고 갔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기에 이토록 학우님들에게 긴 여운을 남기게 된 걸까요? 오늘은  
해외문화탐방 후기 제 1탄 [역사 속 그곳] 이라는 주제로 1일차에서 2일차까지의 일본 북큐슈 해외문화탐방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일본 북큐슈로 떠난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들과 함께 일본 해외문화탐방 후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 I 쿠시다 신사



헤이안 시대에 건립된 오래된 신사입니다 일본 3대 마츠리 중 하나인 '기온 야마가사'가 이 곳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일본풍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가마를 들고 거리를 달리는 무형 민속 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7월 1일부터 축제의 준비로 인해 6월 26일이었던 당시에는 거대한 가마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곳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칼을 볼 수는 없었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장소였습니다.



## I 후쿠오카 형무소

고 윤동주 시인이 옥사한 곳인 후쿠오카 형무소는 현재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내부에 들어가 관광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많은 학우님들이 형무소 주변을 걸으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아픔을 느끼시고 '일본 방문 예정이라면 후쿠오카 형무소에 한번쯤 들리는 걸 추천한다.'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 I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

후쿠오카 현 오무타 시에 위치한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에 다녀왔습니다.

날은 흐려도 비 소식은 없는 날이었지만 마침 위령비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려 학우님들의 슬픈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가이드님의 설명과 함께 비문의 내용을 읽으니 슬픔이 배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학우님들과 위령비에 쓰여져 있는 비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처자, 형제자매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고, 먼 이국 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신 영령들이시여, 몽상에도 그리던 고향산천을 멀리하고, 여기 잠드신 대한인고혼의 한, 언제나 가시리이까. 제2차세계대전시 이 땅에 강제로 징용되어 과혹한 노동에 시달리시다가 불귀의 객이 되신지 어언 오십여성상. 세월은 흘렀어도, 사무친 혼이야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일본 땅에서 운명을 같이 하여온 동료들이여, 여기에 있어. 고인들의 넋에게 위로의 정을 담아, 이 비를 세우노니. 이로서 지난날의 불행이 다시는 없기를... 애처로운 영령들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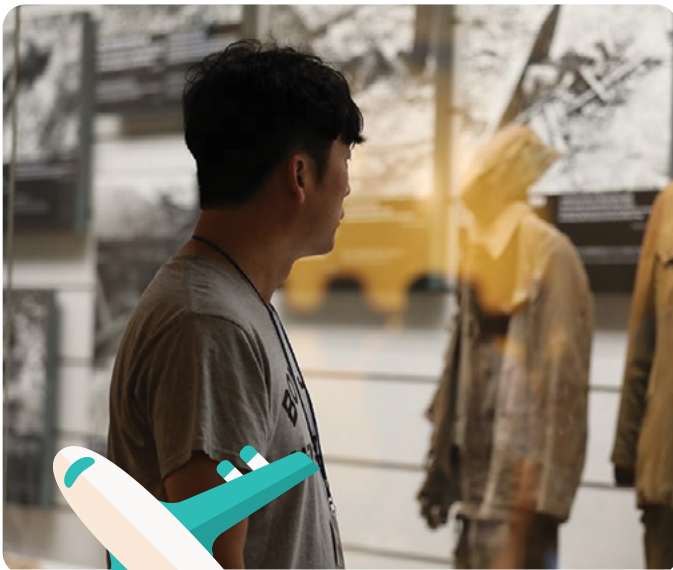
## 1탄 [역사 속 그곳]

2일차 (원폭자료관 > 나가사키 조선소 >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 > 오우라 천주당 > 글로버가든)

### 원폭자료관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이 떨어진 정확한 위치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는 이 박물관은 원폭이 떨어진 당시의 시간으로 멈춰있는 시계를 시작으로 피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전시들로 가득합니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인 팻-맨의 실제 동일 크기의 모형도 볼 수 있습니다!

## 나가사키 조선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의 밀명을 받고 군함을 건조하던 군수 산업으로 크게 발전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소도 다녀왔습니다.

그 유명한 전함 무사시를 건조한 곳도 바로 이곳이죠 전쟁을 발판 삼아 크게 성장한 기업인 만큼 많은 감정이 느껴지는 견학 장소였습니다.



##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

해외문화탐방 당시 일기예보는 매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외문화탐방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군함도로 갈 둘째 날 아침 거짓말처럼 날이 맑아졌죠 하지만 전날에 온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배가 뜨거워 아침게도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곳에서는 VR장비와 다양한 영상 체험을 통해 실제 군함도를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함도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었지만 하지만 박물관 어디에도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쓰여져 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 I 오우라 천주당

군함도를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오우라 천주당으로 향했습니다. 저 맑은 하늘 좀 보세요 이 정도 날씨면 군함도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많은 학우 분들이 아쉬워 했고 훗날 개인적으로라도 방문해야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 I 글로버 가든

천주당 옆으로는 글로버 가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일본의 항구를 통해 많이 이주를 왔습니다. 스코랜드에서 건너온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가 이 곳에 저택을 짓고 글로버의 이름을 따 글로버 가든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메이지 시대의 이국적인 서양식 건물과 그 바로 옆 일본식 소박한 가정집의 모습이 대조되며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 2탄 [가깝고도 먼 나라]

3일차 (타비라 천주당 > 아리타 도자기 마을 > 도산 신사와 이삼평비 > 다케오 신사)

## I 타비라 천주당

조개껍데기를 구워 벽돌을 만들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붉은색이 인상적인 성당입니다. 일본 성당 건축의 대부라고 불리는 테츠키와 요스케가 설계하고 시공한 성당입니다. 여담이지만 테츠키와 요스케의 종교는 불교였다고 해요 참 재미있죠?



타비라 천주당의 정면에는 팔각형 모양의 돔 종탑이 솟아 있는데 매일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에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듣지는 못했어요

훌륭한 외관과 더불어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와 아치형 구조는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모두 모두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 I 아리타 도자기 마을

마을 전체가 큰 도자기 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마을인 아리타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도공 이삼평의 영향을 받아 도자기 문화가 발전했다고 해요



마을 전체적으로 고전적인 느낌이 가득하고 웬지 모를 장인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 I 도산 신사와 이삼평비

아리타 마을을 세계적인 도자기 마을이 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한 이삼평을 기리는 이삼평비가 있는 신사입니다. 신사의 입구를 나타내는 도리이가 자기로 되어있어 도자기의 신을 모시는 곳이라는 느낌이 마구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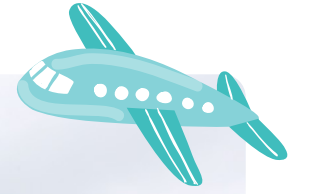


신사의 곳곳에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어  
학우님들 모두 사진을 찍고 찍어주느라  
웃음꽃이 피었었죠



이 날 비가 조금씩 와서 산사까지 올라가는데 길도 미끄럽고 힘들었지만 우리 학우님들의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산 신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삼평비에서 다 같이 사진 찰칵 찍고 내려왔습니다.

## I 다케오 신사



다케오 시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이자 3000년 넘는 녹나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케오 신사에서는 5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주 제신인 다케우치노 스쿠네는 장수의 신이라 장수를 기원하는 소원을 빌기 위해 온 현지인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답니다.



다케오 신사를 오르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한 곳은 다케오 신사 녹나무를 보고 무병장수를 빌 수 있는 곳 다른 하나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로맨티스트가 넘쳐나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님들은 이미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사람들이 있다며 거듭 손사래를 치시고(?) 서둘러 녹나무를 보러 가셨죠

실제로 본 다케오 녹나무는 30m가 넘는 웅장한 나무였답니다.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봐도 한눈에 다 담기 어려운 크기였답니다.



## 2탄 [가깝고도 먼 나라]

4일차 (야나가와 뱃놀이 > 다자이후 텐만구 > 규슈 국립박물관 > 후쿠오카 타워)

### I 야나가와 뱃놀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수로를 뱃놀이를 할 수 있게끔 관광용으로 개발해 40분 정도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특이한 점은 뱃사공이 사용하는 노가 물살을 가르며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 대나무를 이용하여 땅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심이 1m 정도로 깊지 않고 수로의 특성상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많아 젖는 노보다는 젖는 노가 유리합니다~



40분의 뱃놀이가 길 줄 알았는데 주변의 경치도 구경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니 금방 지나갔습니다. 뱃사공 분께서 신나는 한국 트로트를 불러주는 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 I 다자이후 텐만구

일본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이라는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학문과 문화의 신으로 여겨지는 다자이후 텐만구를 모시는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는 현지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꼭 가봐야 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다자이후 텐만구를 상징하는 동물인 소 형상이 있는데 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다자이후 텐만구의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옆에는 규슈 국립박물관이 있어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 I 규슈 국립박물관



일본 주변의 아시아 나라들과의 교류와 일본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본의 4번째 국립 박물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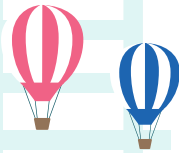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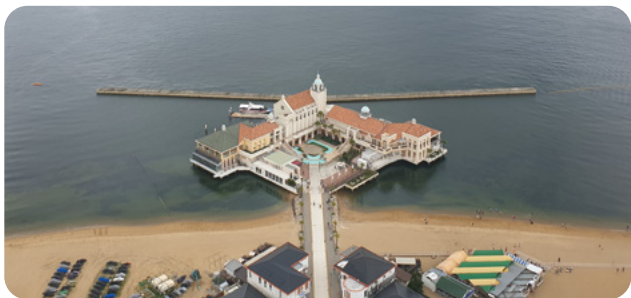
박물관 내부는 촬영이 불가해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규슈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있고 또 한국어 음성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학우님들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I 후쿠오카 타워

우리나라 서울에 남산 타워가 있다면 일본에는 후쿠오카 타워가 있습니다.

그만큼 후쿠오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후쿠오카 타워는 123m의 3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시간만 70초나 걸릴 정도로 높은 타워입니다. 타워에 올라서면 주변 건물들과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예요~

또 타워에서 바라보는 모모치 해변은 필수 관광 코스 라는데 일본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장소인 이 인공섬은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달라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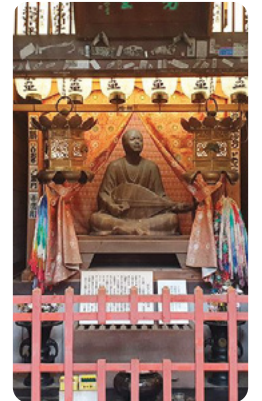


## 2탄 [가깝고도 먼 나라]

5일차 (아카마 신궁 >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 카라토시장)

### I 아카마 신궁

1185년에 지어져 벌써 1000년에 가까워지는 아카마 신궁은 일본에 방문한 조선통신사들의 객관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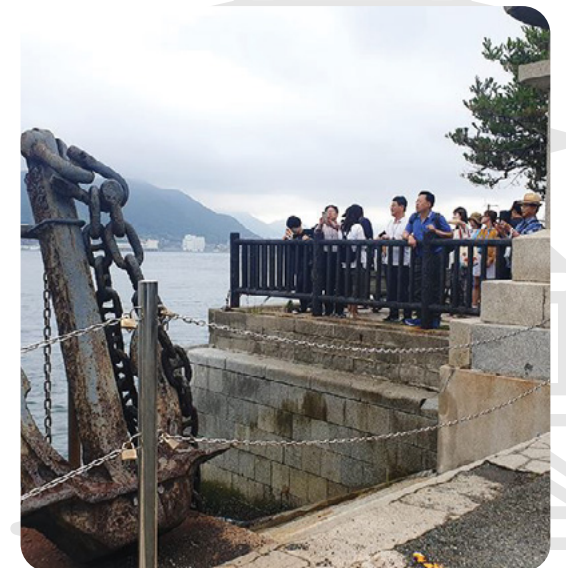


주변의 푸르른 조경들 속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입구는 멀리서도 눈에 확 띕니다.

빨간색 문의 귀퉁이에는 화재를 막아준다고 하는 물고기 꼬리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이를 료칸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용궁'입니다. 또 무사들의 무덤도 볼 수 있고 그 유명한 귀가 없는 호이치의 불상도 볼 수 있습니다.

### I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아카마 신궁의 맞은편에는 조선의 사절단이 일본 땅을 밟은 것을 기념하는 비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배를 정박하던 곳에는 닻이 그대로 있어 역사의 현장임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 키라토 시장



우리나라의 소래포구와 비슷한 느낌의 시장입니다.



카라토 시장은 복어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막상 시장 안에 들어서니 복어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양한 초밥들과 튀김이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100엔 초밥으로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데 정말 다양한 초밥을 괜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간식으로 한두 개씩 먹다 보면 배가 찔 것 같았습니다~



초밥 몇 개를 사고 바로 밖으로 나가면 바다를 배경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 학우님들이 입을 모아 맛도 분위기도 합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연번	구분	학과	이름
1	학생	경영학과	김유근
2	학생	군경상담학과	최일범
3	학생	부동산경제중개학과	윤광선
4	학생	부동산경제중개학과	서영옥
5	학생	사회복지학과	김창식
6	학생	사회복지학과	방재혁
7	학생	사회복지학과	신종희
8	학생	사회복지학과	박형순
9	학생	사회복지학과	박은서
10	학생	상담심리학과	박희영
11	학생	소방방재학과	김은희
12	학생	조리·서비스경영학과	나순녀
13	학생	청소년코칭상담학과	장순옥
14	학생	청소년코칭상담학과	신정원
15	학생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서준원
16	학생	한국어학과	구영일
17	학생	한국어학과	김인숙
18	학생	한국어학과	박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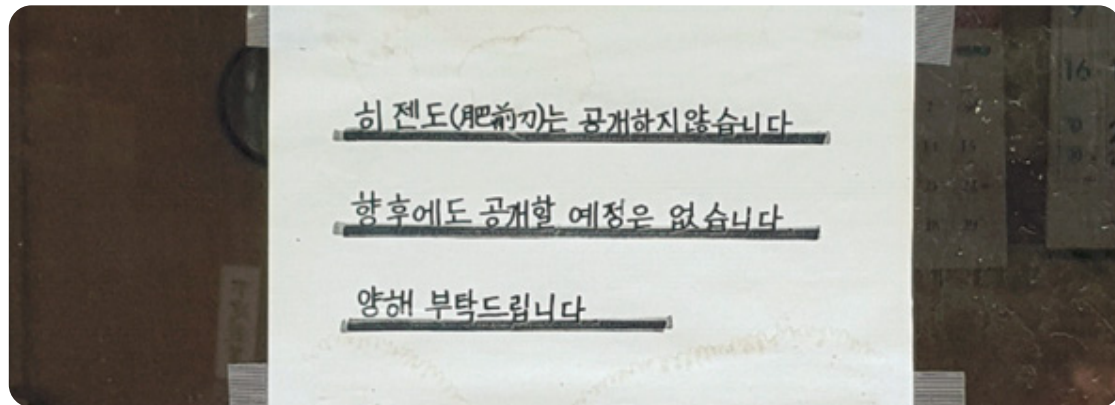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경영학과  
김유근

2019학년도 해외 문화 탐방을 신청할 때 “설마 내가 선발 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청했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에 아직 한번도 방문하지 못하여 한편으로 정말 선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낮가림이 심한 성격에 모르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고 같은 방을 써야 하는 불편함을 잘 이겨 낼 수 있을지, 나로 인해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우선 회사에 미리 얘기 하여 어렵게 휴가를 받아 놓고 가족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미션(“다음 가족을 여행을 위한 사전답사로 아이들 교육 및 음식 등 여러 정보를 확인 하고 올 것”)을 받은 후 마음의 준비에 들어 갔습니다.문화 탐방 전 행사인 발대식에 꼭 참석 하는 것이 탐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여러 일정이 겹쳐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양해를 구하여 참석을 하였고, 긴장한 상태에서 자기소개 시간의 처음을 맞게 되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정신없는 자기소개를 마치고 여러가지로 힘들기는 했지만 일정 설명과 함께 참가하는 여러 인원들을 보고 참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빠듯한 5일간의 일정을 보며 역시 단순한 관광 개념의 여행이 아닌 학교에서만 갈 수 있을 것 같은 문화 탐방으로써의 빠듯하고 힘든 일정이 더욱 선발 된 기쁨과 후회 하지 않을 선택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전날 늦은 퇴근 후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 2시 30분 운전해서 약간은 여유 있게 인천 공항 도착, 발대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여러 일행 분들을 슬쩍슬쩍(낮가림으로 자세히는 못보고) 보면서 잠시 기다리다 보니 벌써 티켓을 받고 짐을 붙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시작, 사실 정말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느끼며 잠시 땀 내리는 기분으로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1일차 참담한 역사적 사건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보관 하고 있다는 쿠시다신사를 방문하며 본격적으로 문화 탐방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문의를 한 것인지 한국말로 ‘히젠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공개할 예정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쿠시다 신사 입구 안내원 부스 향문에...>

중식 후 윤동주 시인이 돌아 가신 후쿠오카 형무소 가는길에는 버스기사님과 약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예정에 없었던 지금 운영중인 실제 형무소 앞까지 가서 구경(?)을 하고 다시 해당 장소인 과거 형무소가 있던 자리(현, 구치소)로 이동하여 잠시 지나가며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가이드님의 설명으로 알게된 젊은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어떠 했을지를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폭자료관 평화의 동상 앞에서 단체로 평화를 기원하며...>



<이삼평 도자기 시조비 앞에서...>

다음으로 조선인 강제 징용 위령비를 방문하고 비가 많이 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고 모두 잠시 함께 묵념을 하고 가슴 먹먹해지는 마음을 뒤로 하고 일찍 이동을 시작 하다보니 약간은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일차는 원폭자료관을 방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TV와 책을 통해 약간 알고 있었던 원폭 당시의 상황과 전쟁의 피해 핵무기의 무서움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이 일본에 어쩔 수 없이 원폭을 투하했다고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음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마음 한 구석이 더욱 참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후 미쓰미시 중공업의 나가사키 조선소를 방문하여 지금은 한국이 조선 강국이지만 과거 일본의 조선 기술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드디어 이번 탐방의 최대 관심사이자 메인이라고 생각한 군함도 가는 일정이 왔으나 날씨 문제로 배가 출항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고 이번 탐방을 함께한 모든 일행들이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일정이 꼬이고 무리를 해서라도 다음날 다시 도전 할 것인지 안전을 위해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 설 것인지의 기로에서 팽팽한(?) 투표 끝에 모두의 안전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대체 일정으로 돌입하여 그라비엔을 방문하여 이름만 들었던 나비부인이나 1800년대의 저택이나 일본에 서양문물을 전파했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탄압했던 일본 역사에 순교한 사람들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서양 문물인 오우라 천주당(일본 국보 -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의 천주당)과 잠시 좋아진 날씨의 오우라 천주당 배경으로 일행들의 사진 촬영 추억 또한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많이 남긴 군함도 방문은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을 방문하여 한국어 해설 설명 상영물을 감상하고 실제 가볼 수 없는 군함도 내부의 모습들까지 VR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더욱 좋았습니다. 한국어 번역이 약간 어색하고 영상과 시차가 있기는 했지만 한국어 해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놀라움이었습니다.

3일차 아침 타비라천주당 가는길에 일본의 천주당이 다양하고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을 배우며 내부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특권(?)과 함께 탐방을 하고, 아리타도자기마을로 이동 도잔신사와 이삼평 일본 도자기 시조비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이삼평 이라는 분의 위대함과 일본 사람들의 그 분에 대한 존경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식사 후 3000년 이상 된 녹나무와 타케오신사를 방문하여 장중하고 위엄에 찬 거대한 녹나무의 광경에 놀랍기도 하고 먼거 숙연한 마음이 들었고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해 보았습니다.





타케오신사를 나와 일본 탐방중 또 하나의 기대에 부풀 곳인 온천으로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우레시노 온천가에 있는 와타야벳소라는 호텔로 온천이 함께 있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같이 얘기로만 들어본 일본의 유명한 온천은 역시 너무 좋았으며, 문화적 차이로 온천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구별 방법(?)도 확인 하고 저녁/아침 두 차례 여유롭게 피로를 풀 수있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벌써 4일차가 되어 이제 반이상 지나버린 일정이 너무 야속한 가운데 문화탐방중 처음으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야나가와 뱃놀이를 하였습니다. 야나가와 수로는 약 930Km에 이르는 거대한 수로로 공성 및 농업이나 생활 등에 다양하게 사용 되었다고 합니다. 뱃놀이에서 뱃사공의 구성진 일본 노래를 시작했고 약간의 성의표시(?) 이후 많은 한국 노래들의 멋진 열창으로 함께 한 학우들 모두 흥이 오른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야나가와 뱃놀이 중...>

이후 다자이후 텐만구를 방문하여 학문의 신에게 자녀들의 학문이 잘 이루어 지도록 기원하고, 큐슈 국립 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여 여러 설명을 듣고 모모치 해변과 주변 경관이 멋지게 보이는 예정에 없던 후쿠오카타워 내부 관람까지 할 수 있어서 더욱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탐방 일정의 마지막 밤은 쇼핑과 근처 이자카야에서 약간(?)은 다르게 보내는 새로운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후쿠오카 타워 내부에서 모모치 해변 방향...>

너무 빠르게 지나버린 탐방 일정의 마지막 날인 5일차 혼슈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통신사의 혼슈지역 최초 방문지의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를 보고 아카마 신궁의 귀가 없는 호이치상을 보며 일본의 역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며, 기다려온 가라토시장으로 향하였습니다.가라토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꿈에 그리던 한국에선 맛 볼 수 없다는 신선한 생참치의 좋은 부위를 먹어볼 수 있다는 말에 여러가지 이유로 힘든(?) 몸을 이끌고 시장 구석구석을 찾아 가장 맛있고 비싸다고 하는 오도로(대뱃살)를 먹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오도로를 몇몇 분들과 함께 먹으며 드디어 소원성취 하는 기쁨을 만끽 하였습니다.

소원 성취로 행복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야하타 제철소를 보고 마지막 일정인 캐널시티를 방문하여 쇼핑 및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한채 공항으로 향하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차를 찾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가방 정리도 못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바로 잠자리에 들면서 즐겁고 행복한 문화 탐방이 종료 되었습니다.



<가라토 시장에서 산 오도로.. 아! 또 먹고 싶다...>

탐방 일정 내내 여러가지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아 다시 가고 싶은 아쉬움이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출발전 받았던 미션(사전답사)은 이번에 가이드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여러 이야기들을 정리 하고 많은 분들이 찍어주신 좋은 사진들을 활용해서 조만간 기회를 만들어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탐방처럼 뽀뽀한 일정은 아니고 온천과 수산시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중간에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구상 중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 해준 세종사이버 대학교 임직원 일동 및 이번 탐방을 주관 해주신 한숙영 센터장님, 한재일 학생지원팀장님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지만 정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우수 교직원으로 참석하신 두 분과 촬영/기록을 담당하신 두 분, 그리고 18분의 학우님들 탐방기간 동안 서로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며 웃으며 함께해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모여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기원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사진도 많이 넣고 싶었으나 자리를 너무 차지하여...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군경상담학과  
최일범

1월 19.06.26.수, 19.06.27.목, 19.06.28.금, 19.06.29.토, 19.06.30.일

시 간	여정 및 주요 체험지	비 고
03:40	○ 기상 후 여권 등 확인	
04:25~05:15	○ 울사랑과 함께 인천공항 출발 및 도착	
05:30	○ 3층 출국장 H카운터 옆 하나투어 테이블에서 문길주 가이드 및 학우님들과 미팅	
06:40	○ 비행기 티켓 수령 ○ 대한항공 KE787 [좌석42C]	
07:00	○ 수화물 탁송	
07:10	○ 출국수속 및 면세점 아이 쇼핑	
07:30	○ 비행기 탑승 [탑승구241번]	
08:05	○ 인천공항 2터미널 이륙	
08:40	○ 기내식 : 빵 2개, 요플레, 물, 파인애플 - 후식 : 오렌지 주스	
09:18	○ 기내방송 - 비행기가 많아 5분 정도 착륙 지연 됨	
09:40~10:40	○ 후쿠오카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세관신고 병행
10:45~11:08	○ 관광 버스 탑승 및 이동 : 기사 하만호 상	일명 도라이바상
11:10~11:50	○ 「쿠시다 신사」	
12:30~13:30	중식 [야키니쿠 뷔페] 스타미나 타로 후쿠오카 시메점	
13:50~14:20	○ 「후쿠오카 형무소 및 구치소 외관」	
14:45~16:10	○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	
19:10	○ 나가사키 닛쇼칸 호텔 여장 : 1호간3층 - 룸메이트 구영일 학우님	
19:30	석식 [호텔식 뷔페]	
21:00	○ 룸메이트와 온천욕	탁트인 전망이 좋음

## 1일차 정리

- 태어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일본 땅을 밟았음
- 어제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안산발 20:50분 인천 국제공항 2터미널 티켓을 예매해 놓고 여유 부리다 22:40분에 터미널에 도착한 바, 차가 없어 집으로 돌아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뜯 눈으로 밤을 세웠음

- 새벽 03:40분에 일어나 여권 등을 확인 후 자고 있는 울사랑을 깨워 인천공항으로 향하였고, 05:30경 출국장에서 학우님들과 가이드님을 만나 여권 제시 후 비행기 티켓을 일괄 지급 받았는데 너무 감사 하였음
- 가방을 붙이고 박형순 학우님과 함께 라운지를 지나 출국 심사를 받고 면세점을 둘러 보았음. 구매할 생각이 없었 거니와 면세점 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면세품 들이었음
- 우리 출국장 241번으로 제일 끝에 위치 하였으며, 출장으로 가다 보니 재작년 11월, 이 터미널이 정식 개항하기 이전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 맞이 환영 행사를 하였던 장소가 있어 옛 생각이 아련히 떠올랐는데 시간이 흘러 승객 입장이 되어 그 장소를 바라보니 옛 기억이 아스라이 떠 올랐음
-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하여 통로측 자리에 앉았고, 이륙 후에는 기내식으로 빵등이 나와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었음. 제주도 행 비행기는 음료수만 주던데..
- 후쿠오카 국제 공항에 내려 입국 심사전 가방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이후 입국 심사 및 세관 신고 후 출국장을 나와 대기중이던 관광버스에 박형순 학우님과 짝이 되었고, 이후 가이드님의 안내에 하여 본격적인 해외문화탐방여정에 돌입 하였음
- 처음 일정으로 ① 「쿠시다 신사」를 방문 하여 우리의 정한수에 해당하는 물로 손과 씻고, 입을 헹구고 내부를 둘러 보았음. 일본의 전통 신을 모시는 공간이며, 시내에 있어 주차 하기가 많이 어려웠다 함. 일본의 첫 인상은 조용하고 차량 역시 우리나라의 모닝급에 해당하는 경차가 많았으며, 도로 등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을 보지 못했음. 이에 가이드님께 여쭙어 본 바 일본은 차고 증명지가 있어야 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함. 선진국은 다르긴 다르구나.
- 점심은 무한리필이라고 불리는 [야키니쿠] 소고기 뷔페를 먹었는데 김치도 있어 맛있게 먹었음. 일본이나 우리 나라나 먹는 것은 동일하리라 생각했음
-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버스를 탔을 때는 부슬비가 내렸다. 일본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단다. ② 「후쿠오카 형무소 및 구치소」는 시내에 자리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처럼 주위가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었음. 이 곳은 시인 윤동주 선생께서 투옥되어 숨진 곳으로 금번 일정에 우리 일행이 방문하게 되었으며, 외곽만 둘러본 것임
- ③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했을 때는 많은 비가 왔었는데 멀리 한국에서 우리들이 왔다고, 너무 늦게들 왔다고 슬퍼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가 생각하니 속이 아련해 질 뿐이었음. 멀리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며 숨겨진 영령들에게 깊은 묵념을 올리고 다음 여정을 향하여 발길을 돌렸음.
- 모든 일정 마무리 후 편히 쉴 곳은 나가사키 일승관 호텔로, 차 없이는 올라가지 못할 높은 곳에 위치한 곳으로 전망 좋은 곳에 방 배정이 되어 너무 좋았음. 가슴이 확 펴지고 기분도 아주 상쾌했으나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 물은 끓여서 먹어야만 했음. 일본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여 목욕 시 앞선 사람이 쓰던 물을 또 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숙박 시설에 물이 없는 것은 이번에 처음 본다.
- 호텔내 식당에서 뷔페로 저녁을 먹었음. 김치와 미소국으로 밥을 많이 먹었는데 한국 밥상과 달라진 것은 없다. 좋아하는 여러 사람과 먹으니 맛이 아주 좋았음
- 21:00경 룸메이트와 온천욕을 다녀 왔다. 사람도 거의 없었고, 멀리 언덕 아래를 바라 보며 목욕을 하는 기분도 너무 좋았었고, 드라이기, 로션, 1회용 면도기도 여유롭게 있어 하루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개인적으로 일본에 혼자 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지 못함에 가슴이 많이 아프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우리 가족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 한다.



② 「후쿠오카 형무소 및 구치소」 배경은 특별한 것이 없어 사진에 넣지 않았음



2일차 19.06.27.수, 아침에 맑음 ☀, 오후 맑음

시 간	여정 및 주요 체험지	비 고
05:40	○ 기상, 세찬 비바람이 몰아침	
06:00	○ 룸메이트와 온천욕	면도기 · 로션등 구비
06:50	조식 [호텔식 뷔페]	
08:10	○ 호텔출발 : 군함도 입항 위한 서약서 징구 ○ 자기소개 : 발대식 때 미진한 부분 보완 등	이후 군함도 견학 취소
08:55~09:55	① 「원폭 자료관」	
10:15~11:00	② 「미쯔비시 조선소」	브리핑 청취
11:15~12:00	③ 「오우라 천주당」	
12:10~13:10	중식 [짬뽕 SET], 나가사키 시카이로	
○ 12:50경 학생지원센터장 한숙영 교수님 당부 사항[군함도 입도 불가에 대한 입장]		
1. 군함도 박물관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관람을 했으면 함		
2. 내일 09:50분 배는 예약 가능, 단, 금일 예약 했던 배 보다는 안전성에 있어 뒤 떨어지고, 이 배를 타기 위하여 아침 09:00까지 나와야 하기에 내일 아침을 먹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3. 또한 09:00경에 승선이 취소될 경우 오전 일정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음		
4. 내일 일정을 소화하고 금일 나가사키 현장 체험을 한 것인가에 대하여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기 바람		
☞ 결과 : 과반수 찬성으로 견학 포기 후 대체 일정 소화 동의, 향후 일정 진행		
13:30~14:30	④ 「클로바 공원」	
14:40~16:10	⑤ 「군함도 박물관」	
16:20~17:15	쇼코켄[나가사키 카스테라전문점] 카스테라+아이스커피로 답소	
17:20~18:30	석식[호텔 롤레라이 레스토랑 비아존] 일본 · 양식 뷔페	
19:30~19:50	○ 편의점 : 세븐 일레븐 아이쇼핑	
20:00	○ 하우스 텐보스 헨나 호텔 여장 - D 136호 [1층 자동문], 4성급, 일명 로봇 호텔	

2일차 정리

- 룸메이트와 온천욕 후 아침을 먹었음. 메뉴는 어젯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난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어 다행이었음
-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세찬 비바람이 불었는데 호텔을 떠날려고 하니 그나마 날이 좋아져 오늘의 일정이 알차리라는 생각을 하였음
- ① 「원폭 자료관」, ② 「미쯔비시 조선소」, ③ 「오우라 천주당」 은 일본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었던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향하여 두 번이나 원자폭탄을 투하 하였던 것은 그만큼 미국이 일본을 미워 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음
- ③ 「오우라 천주당」 은 내부를 가 보고 싶었으나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아 포기를 하고 외곽만 둘러 보았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라 입장료를 징수하나 봄
- 점심은 나가사키 짬뽕 셋트로 맛이 있어 다행이었고, 일본 맥주 3종류를 마셨는데 솔직히 맛은 그게 그거라 잘 모르겠음. 마셨다는데 의의를 둬

- ④ 「클로바 공원」은 오우라 천주당 뒤에 위치한 정원으로 이 역시 높은 언덕에 위치하여 전망이 좋았고,
- ⑤ 「군함도 박물관」은 군함도 역사 등을 소개하는 장소로, 비록 입도 하지는 못했으나 각종 자료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군함도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음.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임. 다행인 것은 안내 영상 자료를 한국어로 틀어 주어 고마웠으나, 영상과 말이 일치가 되지 않아 이해 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이 영상을 봄으로서 과거 우리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음
- 나가사키 카스테라 전문점은 일본에서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로 속소를 향하여 가던 중 도로 옆에 위치한 전문점에 들러 카스테라와 아이스크림을 마셨는데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 이었다.
- 저녁은 일, 양식 뷔페로 초밥이 맛있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게가 있었는데 우리는 먹을 수 없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 오늘의 숙소는 로봇 호텔이라 불리는 하우스 텐보스 헨나로 카운터에 사람이 없고 로봇이 손님들의 숙박 업무를 보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자동 작동 되는 점에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발상 자체가 놀랍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동반하면 좋을 여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그마한 편의점 역시 자동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훗의 바에는 여러 종류의 빈 술병이 진열되어 있어 간접적인 마음을 이용하여 좋아하는 술 한 잔을 했고, 노래방 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용하는 이들은 볼 수 없었음
- 이 호텔의 앞, 보이지 않는 곳에 위락 시설이 있는지, 둥근 놀이기구가 있어 보였고, 좋은 시간을 그냥 보내기 싫어 호텔 주위를 둘러 보았음. 룸 메이트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홀에서 12시 까지 이런 저런 자료를 정리했다. 몇 몇 사람들이 와서 둘러 보고는 가고 할 정도로 한산해 보였고, 21:00가 되어서 안내 데스크에 있는 로봇들의 공연이 있었는데 이 역시 컴퓨터로 작동을 하였지만 그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깜짝해 보였다.
- 오늘의 호텔은 더블 베드로 룸메이트는 안쪽에, 난 출입문 쪽으로 잤는데 침대와 통로 사이가 너무 좁았다. 또한 TV와의 거리도 너무 붙어 있어 불편했음
- 일본은 숙소에 식수는 없어도 금고는 어제와 같이 있었다.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 혹시 있을 불상사를 막고자 함이라 생각을 했고, 어제의 숙소가 높은 지대에 있어 전망이 좋았다면 오늘은 1층에다 전망이라곤 없었다. 단지 출입문이 자동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 고요한 적막이 흐르는 밤, 고국에 있는 가족들, 우리 학우님들 모두 좋은 꿈 꾸고 잘 주무시기 바라오.





3 일차 19.06.28.금, 오후에 맑음

시 간	여정 및 주요 체험지	비 고
07:00	조식[호텔식]	
08:40	○ 호텔출발	
09:45~10:30	① 「타비라 천주교 성당」	
11:10~12:20	② 「아비타 도자기 마을」	
12:35~13:50	중식 [포세린 파크 쿠라] : 카라야게 정식	
14:20~14:50	③ 「다케오 도서관」	아이스커피 마심
15:00~15:30	④ 「다케오 신사」	
15:40~16:30	⑤ 「유메 타운」	아이 쇼핑 박형순 학우님과
17:10	○ 와타나 벙소 호텔 여장, 1031호[수동문] - 일명 다다미 방으로 불리는 호텔	
18:30~20:00	석식 [호텔내], 이세키식 정식	
21:00	○ 룸 메이트와 온천욕	수건, 로션 등 구비

3일차 정리

- 06:30경 세면 후 숙소를 나와 잠시 호텔 외곽을 둘러 보았음. 한국의 여느 건물과 다를바 없는 양옥 건물로 건물 입구에 커다란 로봇이 서 있는게 이채로웠음
- 07:00경 룸메이트와 숙소 앞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뷔페식이라 늘 그랬던 것처럼 미소국에 밥을 말아 많이 먹었다. 어제 저녁에는 몰랐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었고 말하는 투들이 다 한국인들 이었음. 많이 오기도 했다. 크게 이름 부르고, 떠드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밖에 없으니까~~
- 오늘의 첫 견학은 ① 「타비라 천주교 성당」으로, 이는 타비라에 이주한 신도들이 고생해서 토지를 개간하고, 신도들의 기부 끝에 1918년 완성된 건물로 붉은 벽돌 구조의 성당 정면에는 묵직한 종탑이 솟아 있으며, 많은 성당을 설계한 데스카와의 벽돌 구조의 집대성이라 한다. 견학 마지막 즈음 출근한 신부님과 사진 한 컷을 찍었는데 한국말을 제법 하심. 안내원은 더 잘하고...
- ② 「아비타 도자기 마을」은 일본 도자기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온통 도자기로 일주문을 만들고, 양 옆 큰 도자기 설치 후 철망으로 가려 보호하고 있었음. 도자 신사를 둘러보고 산 정상에 도공 이삼평을 기리는 이상평비에 둘러 그의 행적을 살펴 보는 기회를 가졌음
- 중식은 닭 튀김 정식인 카라야게를 먹었는데 맛이 담백하고 맥주만 있었으면 더 없는 식단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음
- 오후 일정으로 ③ 「다케오 도서관」을 방문 후 일본 서적을 둘러보고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나선녀 학우님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음. 6급 공무원으로 31년을 근무 하신 분으로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주기를 요청 하였음.
- 비가 그쳐 방문한 ④ 「다케오 신사」는 도서관 앞에 위치해 있는, 다케오 시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이자, 다케오 신사 녹나무(신목)가 있는 곳으로 이 녹나무는 추정 수령 3,000년으로, 높이 27m, 나무 뿌리의 둘레가 26m로 이 신목을 보러 올라가는 양 옆에는 굵은 대나무가 일자로 쪽 뻗어 자라고 있었음.
- ⑤ 「유메 타운」은 한국의 이마트 등으로 불리는 쇼핑 센터로 한시간 정도 시간을 주어 아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오늘의 숙소는 와타나 벙소우로 일본의 3대 미인 피부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우레시노 온천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3만평에 넓은 일본 정원을 보유한 일본풍의 온천 료칸으로 일명 다다미 방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곳에는 대욕장과 노천 온천이 자리잡고 있었음
- 배정된 숙소는 3층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방에 말로만 듣던 다다미 방을 직접 접해 볼 수 있어 좋았고, 에어컨은 돌아 가고 있었지만 방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탁자 위에는 내일 아침 식권이 놓여져 있었으며,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하던 도중 편의점에 들어 소주 시음을 하고 있어 2잔을 마셨는데 아주 맛이 좋았다.
-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일본 정식이 차려져 있었고 연회장을 연상하듯 플랜카드도 걸어 놓았다. 한재일 팀장님의 사회로 학우님 한 분, 한 분이 일어나 소회를 밝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먹는 음식이, 나 혼자 앉는 자리가 아닌데 하는 생각에 차마 입으로 넘어 가지 않았다.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며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 나만이 즐긴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다. 생맥주도 나왔는데 원래 내 것 한 잔, 다른 학우들에게 얻어 마신게 3잔으로 음식도 맛있었고, 생맥주도 맛있었다. 이번 체험 활동 중에 오늘 저녁이 제일 맛있었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센터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21:00경 방에 들어 왔더니 이불이 깔려 있었다. 원래 이렇게 깔아 준단다. 룸메이트와 함께 온천욕을 하였다. 대욕장으로 물이 매끈 거리는게 첫날의 느낌과 많이 다르지 않았지만 야외탕이 있어 사용을 해 보았고,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들어 온다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 호텔 객실에는 식수가 없으면서 온천에는 물을 평평 흘러 보내는데 뭔가가 아이러니 한 생각도 했다. 또한 기본적인 로션 외에 머리에, 관절염에 바르는 크림도 구비되어 있었고, 빗과 면도기가 많이 준비 되어 있었다.
- 룸메이트를 위하여 호텔 로비에 내려와 울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 다행히 프린트에 한국분이 게시 그 분에게 영어 주소를 물어 봉투를 작성했고, 편지를 썼다. 오늘의 객실은 어제와 달리 신발 벗는 공간이 있었지만 이 역시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로비로 내려온 것으로, 그동안의 여정과 저녁 등이 머리를 스쳐 갔는데 마침 윤광선 학우님이 오시어 호텔을 배경으로 야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다. 룸메이트는 많이 피곤 하신지 잘 주무신다. 다다미 방은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름이니 잘 자고 가자.
- 버스타고 이 숙소로 오면서 「씨볼트의 족탕」이라는 곳을 잠시 보았는데 이는 트레 킹 중 잠시 피로를 풀 수 있는 노천탕과 비슷했다. 숙소 안 매점 옆에도 있는데 온천욕으로 대신 하며 들어가 보지는 않았음
- 처음 방에 들어와 이불장을 여는 순간, 이불이 정돈된 것도, 아닌 것도 있었는데 세탁이나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네.
- 3일차의 밤이 깊어 간다. 남은 기간 알차게 보내 진정 처음으로 온 외국땅의 문물을 많이 보고, 체험하고 돌아 가고자 한다.





4월 19.06.30.토, 오후에 맑음

시 간	여정 및 주요 체험지	비 고
06:30	조식[호텔식]	
09:10	○ 호텔출발	
11:00~11:35	① 「야나가와 뱃놀이」	
11:50~12:30	중식 [후쿠센소], 나베(장어)정식	
13:35~15:30	② 「다자이후 텐만구」 ③ 「규슈 국립 박물관」	
16:10~17:10	④ 「후쿠오카 타워」	모모치 해변 관람 대체
17:50~18:40	석식 [이시규라], 카와라소바[스시+튀김]	
19:05	○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호텔 여정 - 1547호 [자동문], 5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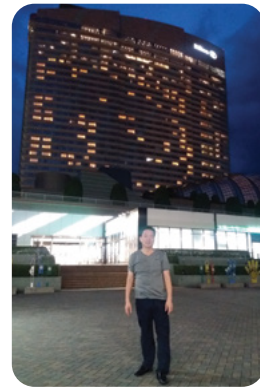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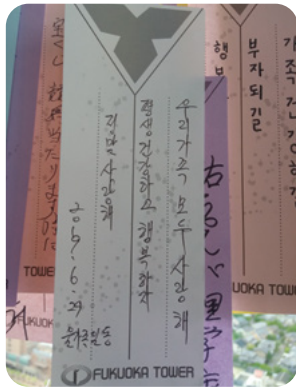
4일차 정리

- 룸메이트와 식권을 준비하여 아침을 먹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오니 바로 앞에 있었고 어제 저녁을 먹은 장소는 아니었다. 식권은 직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구 박스에 넣으면 되는 것으로, 여기에도 미소국과 밥이 있어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 좋았다.
- 09:10경 호텔을 출발 하는데 직원들이 도열해서 플랭카드를 펼치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라는 플랭카드로 참 고마웠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보아서 기분이 좋았음
- 11:00경 야나가와 시로 이동하여 ① 「야나가와 뱃놀이」를 하였는데 이 뱃놀이는 유유히 배를 타고 느껴보는 일본의 문화로 이 강은 성의 주위를 둘러싼 수로이며, 야나가와 시내에는 총 연장 930km에 이르는 크고 작은 수로가 있다고 함.
- 승선 수속을 밟고 한 배당 12명 정도가 타고 40여분 이동을 했는데 배를 저어 이동하는 뱃사공이 한국 노래도 불러주고 유머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다. 뱃놀이 중에 약간의 비가 내려 우의를 입었지만 많이 내리지 않아 다행이었음
- 점심은 장어 정식으로 밥과 같이 먹었고, 김치를 더 달라 주문 하니 없다고 딱 잘라 버리는 것이다. 종업원이 늦게 나와 주인 아줌마가 혼자 서빙을 보는데 많이 바빠 보였음
- 오후 일정으로 찾은 ② 「다자이후 텐만구」는 학문과 문화의 신을 모신 곳으로, 이는 유명 했던 시인이자 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스가와라노 미치라네를 학문의 신으로 모신 곳으로, 규모도 엄청 났지만 여기를 찾은 사람 또한 많아 도심에 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 근처에 있는 ③ 「규슈 국립 박물관」은 일본 후쿠오카 현 다자이후(태재부) 시에 위치한 역사 박물관이다. 도쿄, 나라, 교토에 이어 일본의 4번째 국립 박물관으로 2005년에 설립됐다. 규슈 지역은 한국, 중국 등 대륙과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았던 곳이며, 선사시대 이래로 일본의 고대, 중세, 근대의 유적이 오롯이 남아 있음.
-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의 역사를 조망하는 국립 박물관이 이 지역에 세워졌다. 높이 36m,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에 둥그런 커다란 지붕과 벽면 유리로 된 건물로, 13세기의 소설 <영화물어>, 14세기 일본 칼 <대도 명래국광>, 15세기 카노 마사노부(수야정신, 1434~1530)의 그림 <주무숙애련도> 등 일본 국보 3점을 비롯해 중요 문화재 약 30점 등 165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함
- 박물관은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적 관점에서 파악할 목적으로 설립 됐다. 일본 구석기시대부터 근세 말기(1853년) 까지 일본 문화의 형성 과정을 아시아 여러 지역과의 교류에 의해 구축되어 온 관점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 전시실은 3층과 4층으로 나뉘어 있다. 4층에 위치한 문화교류전시실은 상설 전시실로서, '바닷길 그리고 아시아로 통하는 길'을 주제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과 문화 교류를 나눈 역사에 초점을 맞춰 800~900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 전시실 가운데 후쿠오카의 미야지다케 고분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구석기시대의 생활상부터 농경사회 국가의 형성, 건당시대, 아시아 및 서양과의 교류 등에 대한 사료를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눠 전시하고 있다. 슈퍼하이비전을 설치하여 실크로드 둔황과 박물관 소장품의 영상을 360인치 대형 화면에 소개하고 설명하는 영상 전시를 마련했다. 또 실제로 만져보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1500㎡의 3층 특별 전시실에서는 매년 4차례 일본 국내외 작품을 모아 특별 전시회를 갖는다. 다행히 한글음성 안내기를 대여해 주어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 박물관을 나오자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장대비로 변하여 내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차장님이 가져 오신 우산 덕분에 비 맞는 것은 피해 다행이었고, 관광 버스에 오르고 인원 점검 후 센터장님께서 준비 하셨 다며 과자 선물 박스를 하나씩 주신다. 우리가 드러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감사 하게 받았다. 귀국 후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겠다.
-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들린 ④ 「후쿠오카 타워」는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높이가 234m로, 전망대에 오르면 우리가 묵을 호텔과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의 홈구장인 야후돔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그리고 밤이면 더욱 아름다운 해변공원인 모모치 해변이 넓게 펼쳐져 있어 마음이 탁 트임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일정에 모모치 해변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일정 변경하여 타워에 올라갈 수 있어 좋았다. 우리나라에도 타워가 많지만 높은 타워 제대로 올라가 본 곳이 없다. 참 좋은 관람이었다.
-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내원이 가을에 계단 오르기 대회를 하는데 많이 참여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여기에도 한국 사람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것이다. 한국어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말이다.
- 저녁 식사는 카와라소바를 먹었으며, 스시 및 튀김으로 맛이 있었다. 초밥도 맛있었고, 서빙도 알차게해 주었다. 어제 저녁처럼 푸짐해 보여 좋았음
- 19:00가 넘어 오늘의 숙소인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호텔에 도착 후 안내 사항과 객실을 배정 받았음. 이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쓰려면 간단한 인적 사항이 담긴 개인정보를 제출 해야 한다 해서 몇 학우님의 정보 사항을 제출 하였던지 자세한 안내문과 함께 코팅이 된 식권을 나눠주는 것이었음. 룸메이트와 함께 1547호에 입실하여 여장을 풀었다. 바로 앞에 돛구장과 넓은 해변이 자리잡고 있었다. 안내문에 적시된 사항대로 와이파이를 설정하고 룸메이트와 함께 1층의 쇼핑센터를 둘러 보았다. 호텔 규모 만큼이나 쇼핑센터도 규모가 많이 커 보였다.
- 또한 교회도 있어[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라 생각함] 잠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사모님 드리러면서 과자 선물을 주는 것이라 받았음. 건물 밖으로 나가니 비바람이 치고 있었는데 호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사람이 없어 셀카를 찍는 도중 한 남자에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찍어 주길래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홍콩에서 왔다길래 감사를 표했다.
- 22:00경 거실에 왔더니 룸메이트는 벌써 꿈나라로 갔다. TV를 켜 놓았는데 한국방송이 나오고 자막은 일어로 나오고 있었다. 확실히 특급 호텔은 뭔가는 틀리다. 정규 뉴스도 나왔는데 G-20정상 회의 등이 화두로 나오고 있었다. 창 밖의 풍경들이 낯설지는 않다. 계속 바람이 부는지 가로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기회가 되면 가족들과 돛 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를 보고 싶다.
-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간다. 거실의 불을 희미하게 켜 놓고 앉아서 있는데 잠은 쉽사리 오지 않는다. 밖에 다시 나갔다 올까도 했는데 웬지 처량해 보일까봐 나가기 싫다. 뻑뻑하게 짜여진 일정, 이후동 차장님과 가이드님께서 매번 고생을 하신다.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와 거리를 두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룰이 있기에 거기에 따르는가 보다. 언제 다시 일본에 올까? 언제 다시 해외에 올까? 언제 다시 이런 대접을 받아 볼까? 언제 다시 이런 5성급 호텔에 묵어 볼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가족 들을 동반하고 오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그 때도 이번에 받았던 귀한 대접을, 아니 더 좋은 대접을 받는 여행을 하리다. 이번에 있었던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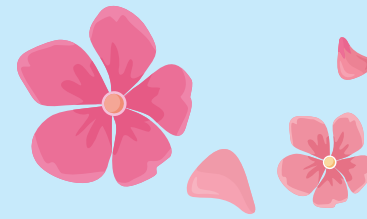






5월 19.06.30.일, 오후 5시

시 간	여정 및 주요 체험지	비 고
06:30	조식[호텔식]	
08:40	○ 호텔출발	
09:45~10:00	○ 메가리 휴게소 도착 및 휴식	
10:10~11:50	①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② 「아카마 신궁」 ③ 「청일 강화 기념관」 ④ 「가라토 시장」	주위에 모여 있음
12:40~13:45	중식 [샤브요 고쿠라에키마에점] 돼지고기 샤브샤브	
14:15~14:40	⑤ 「시모노세키 야하타 제철소」	
15:50~17:30	⑥ 「캐널 시티」	쇼핑센터, 아이쇼핑
17:50~18:30	석식 [하키타 카마돈] 와규스키야키+카마메시 셋트	부슬비가 내림
18:40	○ 후쿠오카 국제공항도착	
18:45~19:00	○ 발권[대한항공 KE 782] ○ 수화물 탁송 및 라운지 통과	
19:10	○ 출국수속 완료 및 출국장 대기	
20:45	○ 비행기 탑승 [탑승구 56번] - 좌석 : 44C [통로쪽]	
21:05	○ 후쿠오카 공항 출발	
21:40	기내식 [김밥, 과자류, 오렌지쥬스]	
22:20	○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도착	
22:35	○ 수화물 찾음	
23:00	○ 출국장 나와 울산과 재회	
07.01.00:20	○ 울 보금자리 도착	



### 5일차 정리

- 해외문화탐방이라는 타이틀로 일본에 온 일정을 마무리 할 날이다. 05:30분에 일어나 룸메이트와 교대로 샤워를 하고 06:30분에 1층에 있는 식당으로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 줄을 서고 얼마 있지 않아 자리를 잡았고 아침은 역시 미소국에다 밥을 말아 먹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등 많은 이들이 와 아침을 먹는다. 우리 테이블은 어떤 아줌마들이 와서 먹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왔느냐 물었더니 답변을 못 해 일본인이냐 묻자 역시 대답이 없어 영어로 묻자 타이완에서 왔다고 한다. 참 물어보기 힘들다.
- ①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에서는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의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 기념비는 1404년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 사절단이 일본 땅에 발을 내디뎠던 곳이자 일본 도착 후 머물던 시모노세키 공관에 세운 기념비로, 기념비에는 각각의 언어로 상세하게 모든 내용이 설명 되어 있으며, 그 당시 배를 정박 하던 곳에는 닻이 그대로 있어 이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느낄 있었음. 조선통신사는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는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을 데려오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파견된 것이라 함.
- 이어 바로 앞에 있는 ② 「아카마 신궁」은 1185년에 건립되었다. 같은 해 여덟 살 나이로 죽은 안토쿠[1180~1185] 왕을 모신다. 안토쿠 왕은 헤이안시대의 무장 다이랴노 기요모리의 외손자로, 무사집단 겐지와 헤이시가 최후의 전투를 벌인 단노우라 에서 헤이시 일파가 패하자 함께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단노우라에 가까운 간몬해협에 자리 잡고 있다. 원래는 조선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며,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가 남아 있다. 신사의 상징인 빨간 문은 1958년에 재건되었다. 경내에는 안토쿠 왕릉, 헤이시 일파를 모시는 시치모리즈카 등이 있다. 매년 5월 안토쿠 왕을 기리는 센테이사이가 열린다
- 아카마 신궁 바로 옆의 ③ 「청일 강화 기념관」, 은 일본과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장소로, 청일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하여 1895년 4월 17일 청국과 일본이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한 강화조약 장소를 견학하였음.
- 그리고 북어를 비롯하여 도미나 방어의 어획량으로 유명한 시모노세키시의 간몬의 부역으로 불리는 ④ 「가라토 시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오전 일정을 소화했다. 가라토 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산시장과 같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사서 부룻가에 앉아 먹는 모습들이 이채로웠다. 해변이라기 보다는 바다와 도보 사이에 난간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대형 배들이 수시로 오가는 큰 길목인가 보다.
- 점심은 고쿠라 역 근처에 있는 샤브샤브 뷔페로 배를 채웠는데 조용한 장소만 보고 다니다가 도심지로 나오니까 이제 사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사람들도 많고 역 안내문에는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었으며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어 이제야 일본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늘 소고기 샤브샤브를 먹다가 일본의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그 상황은 별다르지 않았다. 배고프니까 뭐든지 맛있으니까.
- 오후에 찾은 전범 기업 ⑤ 「시모노세키 야하타 제철소」는 일본의 제철소 중 하나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시에 있으며, 도바타 구에 있는 시설과 야하타히가시 구에 있는 시설들을 모두 통틀어 이르는 말로, 신일본주금 에서 관리하고 있다. 1901년에 일본 정부에서 직접 세운 관영 제철소로 시작했다고 하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외관상으로 보아서는 건물이 작아 보이고 해서 그리 큰 감동은 없었음
- 이는 1887년 영업을 시작한 이와테현 가마이시 시의 가마이시 광산 다나카 제철소에 이어 일본에서는 두 번째로 세워진 것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일본내 철강 생산량의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1934년부터는 민관 협동으로 세워진 일본 제철이 관리하다, 전쟁 이후 야하타 제철을 거쳐 1970년 야하타 제철과 후지 제철의 합병으로 새로이 태어난 신닛폰 제철에서 관리하게 됐다. 한국인을 노동에 강제 징용한 사실이 있다. 표면처리장판, 전자기강판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오늘 제철소 내부 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 옛 건물 청사동이 보이는 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안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해외문화탐방의 마지막으로 ⑥ 「캐널 시티」 에 들려 아이쇼핑을 하였다. 조용한 곳에 앉아 일정을 정리 할려고 하니 옆에 사람들이 떠드는데 모두 한국사람들의 무리였다. 이곳이 공항과 가까워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보다.



- 마지막으로 공항근처 5분 거리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모든 것이 맛있고 잘 먹었다. 저녁 후 버스를 타는데 비가 제법 내렸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돌아갈려니 많이 아쉬워서 그런 모양이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 후 운전기사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발권을 하였다. 출발할 때와는 달리 출국할 때는 직접 발권을 하고 화물을 붙였다. 출국 수속을 끝내고 조금 일찍 출국장으로 향하여 면세 부스를 돌아 보았다.

- 20:45경 마지막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다. 곧이어 껌을 내고 이륙을 하였는데 밤이라서 더욱 주위의 경치는 볼 수는 없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정말 일본에 아쉬움을 남겨두고 온다. 가슴속에는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이 비행기를 탄다. 지금까지 53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경험했던, 가슴 아팠던 모든 나쁜 일은 일본 땅에 흩날려 버리고 좋은 일들만, 한국에는 정말로 좋은 것만, 좋은 기억만 가져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우물안에서 살았던 삶을 반성하고 나를 챙기지 못했던 「나」를 반성하고자 한다.

① 5일 동안 해외문화탐방을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여준 한숙영 센터장님, 한재일 팀장님, 하나투어의 이후동 차장님, 가이드 문길주님과 학우 여러분들께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일 동안의 해외문화탐방 즐거웠고 가슴에 남는 여행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사회 및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늘 이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세세하게 챙겨주신 고마움과 선물, 가슴속에 늘 간직하겠습니다, 가족들 에게도 전달 잘 하였습니다.

② 지금까지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하늘만 바라 보았습니다. 일본이라는 외국에 왔으니 앞으로 가슴을 크고 넓게 펴고 살겠습니다. 슬픈 일, 나쁜일, 걱정, 슬픔, 아픔, 이별 등등은 모두 일본에 남겨 놓고, 일본 바다에 뿌리고 오로지 건강, 행복, 사랑을 나의 마음에, 비행기에 싣고 한국에, 사랑하는 울보급 자리에 돌아가 직장 에서는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교도관의 직무인 교정교화에 힘쓰고, 심마니와 태백화원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친구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③ 사랑하는 사람과 아들 셋을 키우면서 가장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건강, 행복,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을 위해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아픔을 함께 하는 멋진 아빠가 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 주는 모든 이들에게도 진정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④ 남은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세종 사이버대의 훌륭한 졸업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지도 해주신 교수님들께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길고 또 너무나행복했던 일본 해외문화탐방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 하겠습니다.

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나 **최일범**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까지 아프지 말고, 정말 아프지 말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며, 나 하나 아프면 모든 이들이 힘들어 하니까 말입니다. 오랜 기간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250살 수명은 꼭 간직 해야지.



## 제4회 해외 해외문화탐방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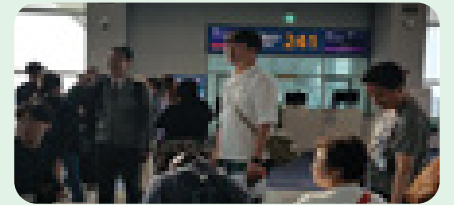
부동산경매증개학과  
윤광선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국가의 문화체험 및 국제인으로서의 안목을 높이는데 도움을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17학번 김태순 대표님이 러시아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와 정말 뜻깊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좋은분들과의 교류도 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끊이지않고 연락 하고 있다면서, 참여 해보라는 권유로 보람있는 경험이 될것으로 생각해 탐방신청을 하였다. 행운으로 선발되어 참여 하게되었다.

첫만남 6월15일 학교 무방관에서 발대식에 참여하여, 학생지원팀장과 참여한 타학과의 학우들과 첫만남과 한재일 팀장님의 자상하신 배려로 개별 체크까지 해서 준비해주신 커피와 다과를 즐기며 하나여행사측의 일정과 내용 설명회를 들었다.

### 탐방 일차

새벽 5시반부터 6시까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모였다. 주의 사항과 일정 안내를 듣고 출국 수속을 마친후 대한항공 (KE787)편으로 08시00분 출발 1시간 10분쯤 날아가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쿠시다 신사’로 출발 탐방 여정의 시작이다. 가이드님의 설명이 헤이안시대에 세워진 유서깊은 신사라고 한다. 일본 3대 마츠리(신과 인간의 만남)중심지인 신사로 가마를 들고 가마를 들고 거리를 달린다 한다. 수령이 천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하카타 제일의 고목나무로 유명하고, 명성 황후를 시해한 칼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니, 적개심이 일어난다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벽 4시반부터 뛰어 다녔더니 배가고프다, 야끼니쿠라는 고기뷔페에서 점심 식사를 한후 다음 탐방지로 이동하려는데 비가오고 있다.



비가와도 일정대로 후쿠오카형무소와 구치소를 외관만 돌아보았다, 가이드님의 설명이 형무소 안에는 들어갈수 없고 촬영도 하면 안된다고 했다. 차로 외관만 한바퀴 돌아보고, 2차 세계대전에 일본에 강제 징용되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불귀의 객이된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우산을 쓴채로 참배를 했다 마음이 숙연하다. 빗속에서도 잠시 기념 촬영후 탐방 첫날 숙소인 나가사키 일승관 으로 왔다. 탐방기간 동안 같이 지낼 룸메이트가 정해졌다.

호텔뷔페로 저녁식사를 하고 방에 돌아와 한방을 쓰게된 김창식 학우와 서로를 소개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김창식 학우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한 박사님으로 UST 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은퇴한후 세시대 사회복지학과에 사회복지사 1급을 하려고 편입학 했다고 한다. 나이도 들고 이제 사회에 봉사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개인 신상을 세세히 하는 그렇지만 몸이 불편한곳이 있는데도 남을위해 봉사 하겠다니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훌륭한 정신과 의지를 가진 학우와 룸메이트를 하며 우의를 다질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인생을 한 수 배운다.

### 탐방 2일차

바쁜 일정으로 여섯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호텔식 으로 조식을 마치고, 8시에 모여 탐방일정에 들어갔다.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 투하된 정확한 위치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 졌다는 공원안의 국제문화회관에 원폭 자료관이 있다.

원폭 자료관을 둘러보며 원폭에 의한 피해의 실상을 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참혹했던 것 같다. 원폭 조선인희생자 추모비에 묵념을 하고, 원폭투하 장소인공원을 둘러 보았다. 비를 맞은 추모비를 바라 보니 타국땅에서 돌아가신 영령들이 더욱 애처로워 보여 마음이 안타깝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오우라 천주당을 돌아보았다. 순교한 26인의 성인들을 봉양하기 위해 1864년 프랑스신부에의해 만들어 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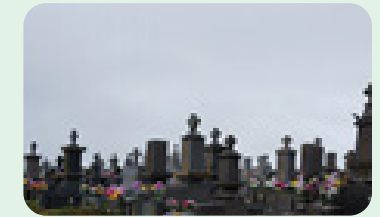
애석하게도 비는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나가사키 조선소 시료관을 방문해 안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음 방문지인 군함도를 고대하고 모였다.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비는 잠시 안오는데 파도 때문에 군함도를 갈수없게 되었다. 아쉬움을 안고 창업 明治32年 이라고 쓰있는 시카이루(四海樓)에서 점심을 맛있게 했다. 식사후 군함도에 못가는걸 아쉬워하는 학우들의 마음을 헤아린 팀장님이 내일이라도 가는거 찬반 투표에 붙였으나 10:10동수 재투표에 붙여 11:9로 부결 다른곳 대 체방문으로 결정되었다.



군함도에대한 자료는 인터넷 자료로도 볼수있지만 여기까지 와서 현장답사를 못하는건 너무 아쉬웠다. 아쉬움을 달래며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토마스 브레이크 글로벌 가든을 둘러보며 군함도에 못가는 아쉬움을 달래본다. 정박해있는 대형 크루주선이 보인다.

둘째날 탐방을 끝내고 헨나호텔 맞은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로봇이 안내하는 호텔이라는 가이드님의 설명에 궁금 해하며 호텔로 이동해 로비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패브릭 인형같은 로봇이 인사를 한다. 체크인 카운터에는 공룡로봇이 돌리고 여성 인형이 하나다. 앞에 있는 스탠딩 책커에 체크인 하고 방 비번을 받아 들어가면 된다. 그냥 무인호텔 이랄까 로봇 호텔이라는 기대와는 달랐다.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세계 최초의 로봇호텔 사람이 없는 무인호텔 이라고 한다. 아직은 사람이 상상하는 로봇호텔은 아니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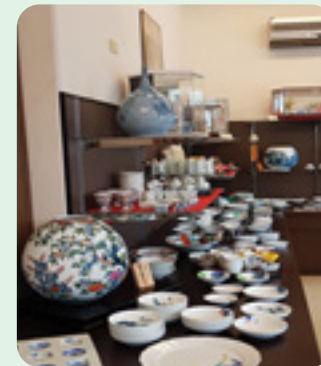


### 탐방 3일차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일본 국가지정 문화재라는 티비라천주당 성당으로 이동했다. 성당을 보고 큰 감동보다 성당을 바라보고 좌측에 있는 수많은 비석에 눈을 돌린다. 일본에서 흔한 모습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공원묘지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색스럽다.

이어서 아리타 도자마을 도잔신사를 방문했다. 아리타 신사에 오르니 도조 이삼평 비(陶祖 李三平 碑)라고 쓰여있다. 가이드로부터 백제인 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편 마음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애석한 마음이다. 비는 계속 오락가락 한다.

아리타 산아래 4Km에 걸쳐 700여개가 넘는 도자기 상점이 있다는 도자마을 을 돌아보니 몇 군데만 불이켜 있고 거의 문이 닫혀있다. 1896년(메이지29년) 도자기 품평회로 시작되서 상인들이 모여서 아리타산 도자기를 팔던 것이 1915년 후카가와 로쿠스케가 도기점들을 연합하여 현재의 아리타 도자기마을로 발전 했다 한다. 문이 열려있는 가게를 들어가 보았다 도자기를 살펴보고 이전, 광주 도자기 축제에서 본 우리나라 도자기가 색깔이나 품질이 훨씬 좋다고 느껴졌다.



신사에서 150m쯤 걸어가니 3,000년 되었다는 녹나무가 있다 대나무가 둘러 싸고 있다. 녹나무 밑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높이가 30m나 되는 이 녹나무가 사가현의 100선에 들어 간다니 유명한 나무가 많다는데 더 놀랍다.

씨볼트족탕 체험을 생략하고- 탐방 셋째날 숙소인 와타야벳소 호텔로 이동해 했다. 숙소가 다다미방이다, 저녁이 가이세키로 예정 되어있어 기대를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넓은 홀에 1인용 테이블이 이어져 퍼져있고, 음식은 한사람씩 차례로 공동으로 써빙하는 방식으로 간이 체험을 했다. 옆 사람과 즐겁게 얘기도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방에와 유카타로 갈아입고 온천에서 목욕을하고 노천탕까지 즐기고 나니 나른하다, 같이 나온 최일범 학우와 호텔앞에서 유카타 차림의 인증샷을 남겼다. 방에 돌아와 다다미에 겹겹이 퍼진 잠자리에 들었다.





### 탐방 4일차

지난밤 사가현 와타야 벳소의 다다미방과 가이세키식을 체험하고, 온천까지 즐기며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 일본문화 체험을 조금 한셈이다. 벌써 4일차가 시작된다. 아침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로비에 내려와 출발을 기다리며 오늘은 비가 안왔으면 해본다.

후쿠오카로 와서 빡빡한 일정에도 여유롭게 뱃놀이를 즐길수 있는 날이다. 야나가와 뱃사공의 노래를 들으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하고 사진도 찍으며 흥허물이 없는 지기가 되어 한껏 뱃놀이를 즐기고, 다자이후텐만구로 갔다. 텐만구 란(天宮) 신사의 한종류로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모신곳으로 입시생 부모가 많이 찾는곳 이라고한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건 문화 차이가 없나보다. 가이드님이 뱃나무와 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잃어버렸다.

걸어서 500m이동하니 큐슈국립박물관이다 한바퀴 돌아보고, 후쿠오카 타워로 갔다. 전망대에 오르기전에 후쿠오카의 상징인 타워의 높이가 234m라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63빌딩 보다도 낮다. 그런데도 전망대에 오르니 모모치 해변과 멀리 시원한 바다와 시내 전경까지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뿌연 매연으로 멀리 볼 수 없는 환경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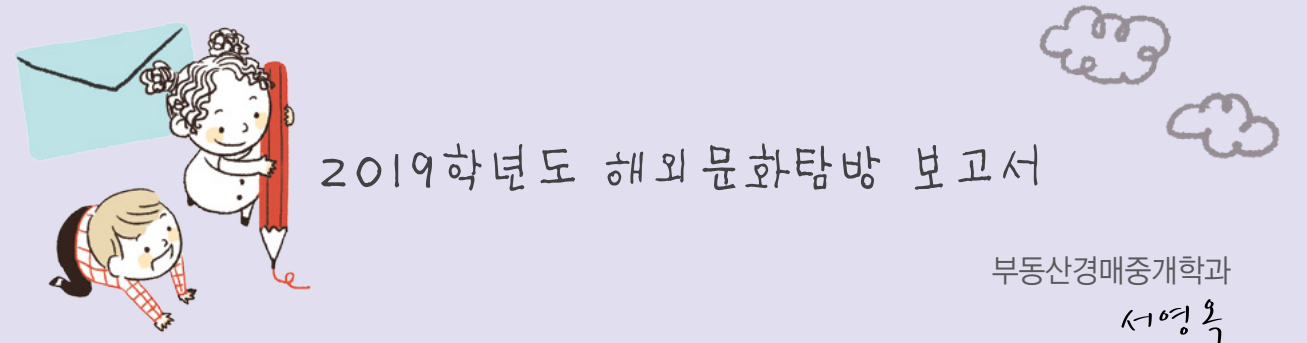
후쿠오카타워에 올라 전망을 구경을 한후 저녁식사는 와규 스키야키와 카마메시세트 라는데, 튀김과 면으로 식사를 마쳤다. 이번 탐방의 마지막 밤을 호텔 힐튼 씨호크 후쿠오카에 짐을 풀었다.

### 탐방 5일차

호텔 조식후, 아카마신궁을 방문했다 1185년에 건립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신궁으로 역사적으로는 조선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건너편에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다. 카라토시장도 들렀다. 시장은 여기나 저기나 사람이 북적대고 소란 스러웠다.



점심 식사후 야하타 제철소를 방문하고 돌아 캐널시티 하카타에서 물쇼를 보고, 쇼핑센터를 둘러 보았다. 저녁식사를 한후 후쿠오카 국제공항으로 와서 대한항공(KE782)편 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 짐을 찾고 아쉬운 인사를 나눴다. 탐방 5일동안 참여학우 모두가 지기가 되었다.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부동산경매중개학과  
서영옥

벌써 일본을 다녀온지 보름이 가까워 오네요. 일본과의 이런저런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바쁜일정속에 미뤄 두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문화탐방하던 첫날로 돌아갑니다~

### 첫째날

동이 트기전 4시에 기상하여 기대만땅으로 인천공항을 향해 달립니다.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몇몇분들이 먼저나와 계시고 처음이지만 인사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팀장님, 관계자분들, 학우여러분~~

하늘을 날아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4박5일 일정의 첫발을 내딛으며 일본의 공기를 마셔봅니다. 공항 1층에 전시된 쿠시다신사의 축제인 마츠리 가마의 장식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오릅니다. 후텁지근하고 흐린 날씨에 첫 번째 방문지인 쿠시다신사 무형민속문화재중 하나로 헤이안 시대에 건립된 이곳은 마츠리 준비로 한쪽에서는 축제 준비가 한창이고 가이드님의 설명으로 이곳 저곳을 둘러봅니다. 명성황후 시해의 칼이 보관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시려웁니다.

두 번째장소인 후쿠오카 형무소로 향합니다. 가랑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전 구치소 자리였던 이곳은 윤동주시인이 고문 끝에 목숨을 잃은 곳으로 지금은 위치만이 존재하고 건물도 새로지어져 흔적이 없습니다. 새로지어진 형무소 담벼락을 삼삼오오 걸으며 학교에서 배웠던 윤동주시인의 시를 읊조려 봅니다.

세 번째 장소인 어렵게 세워졌다는 조선인 징용희생자 위령비를 방문 한글로 새겨진 비문을 보고 무성히 자란 풀들을 보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 아픈 역사를 가슴에 담으니 마음도 무겁고 징용관계자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도 생각이 납니다. 첫날의 피곤함을 나가사키 닛코칸 숙소에서 몇몇의 학우들과 맥주한잔으로 풀고 잠자리에 듭니다.

### 둘째날

첫 번째 나가사키원폭자료관을 방문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위치에 지어진 기념관은 시계도 그시간으로 멈춰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의 피해 전 후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인들도 많은 희생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나가사키조선소를 방문합니다.

전함 무시시를 건조한 이곳은 작게 모형들이 전시되어있었고 세월호 인양과정에 봤던 다이빙벨도 전시되어 볼수있었다. 안내하시는 분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있다고 위트있게 설명하여 주셨다. 뿌듯한 순간이다^^ 세 번째 군함도를 방문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취소되면서 카톨릭천주교회인 오우라천주당 및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26인의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가 1864년에 지은 글로버공원을 방문하였다. 건물외관은 고딕과 바로크양식이 혼합되어있으며 가장오래된 나무로 지어졌다고 한다. 네 번째 군함도 방문의 아쉬움을 디지털 박물관이 대신하였다. VR장비와 다양한 영상체험을 통해 피해당시의 상황을 볼수있었으나 우리 조선징용에 관하여는 찾아볼수가 없었다. 예정에 없던 나가사키에서 유명한 카스테라시식을 준비하여주셔서 3대 카스테라중 한가지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갖었다. 이날 숙소는 로봇호텔이라는 헨나호텔에서 로봇이 체크인아웃하고 미니로봇들이 연주하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 세째날

첫 번째 티비라 천주당성당을 방문하였다. 카톨릭박해가 심해 신앙을 숨기고 살아야했던 잠복 크리스찬이 많은 곳으로 프랑수아독지가의 기부등으로 1918년에 건립되었다. 두 번째 아리타 도자기마을을 방문하였다. 이삼평이 임진왜란때 일본으로 끌려와 정착한곳으로 일본에서는 이삼평을 극진히 대우하고 이삼평비를 만들어 기린곳으로 아직 후손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다케오신사를 방문하였다. 가장오래된 신사이자 30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거대한 녹나무를 볼수있었다. 이날의 숙소는 우레시노 온천마을에 위치한 와타야벳소에서 일본의 3대미인탕중 하나로 알려진 이곳에서 온천욕과 다다미방 체험을 하며 피로를 풀었다.

## 넷째날

첫 번째 야나가와 뱃놀이를 하였다. 유유히 흐르는 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며 뱃사공이 부르는 소리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었다. 두 번째 다자이후텐만구를 방문하였다. 학문의 신을 모시는 곳으로 다자이후에 905년에 건립하였다. 세 번째 규슈국립박물관 다자이후텐만구를 지나서 오르면 규슈국립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4번째 국립박물관으로 5개의 테마로 나누어져 있다.

1.구석기-조몬시대 2.야요이-고훈시대 3.나라,헤이안시대 4.가마쿠라,모로마치,아즈치-모모야마시대 5.에도시대 무료 오디오 가이드로 궁금한 것을 들을수 있었지만 몇 개부스만이 가능하여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네 번째 후쿠오카타워 모모치해변에 위치해있는 높이 234m의 정삼각형의 타워로 1988년 후쿠오카시 제정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졌다. 70초만에 123m를 올라가는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서 후쿠오카 전경을 내려다 볼수있었다. 마지막날 숙소인 힐튼호텔은 5성급답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 다섯째날

첫 번째 아카마신궁을 방문했다 안토쿠왕을 모시는 신궁으로 입구가 빨간색문과 금장으로 장식되어 있다. 건너편에 조선통신사 기념비와 기념관도 함께 관람하였다. 그 당시 배를 정박하던 곳에는 닻이 그대로 있어 이곳이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카라토시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일본 해산물을 볼수있었다. 세 번째 시모노세키 아하타제철소를 방문하였다. 아하타제철소는 독일에서 최첨단기술을 도입,초반에는 고전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일본의 중공업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네 번째 출국전 분수쇼를 하고 있는 캐널시티에 들러 다양한 쇼핑복합물을 둘러볼수있었고 공연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으나 시간부족으로 보지는 못하였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쉬움과 여행의 고단함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역사속으로 문화탐방은 좋은 학우님들과의 만남이었고 많은 준비를 하신 센터장님과 팀장님 관계자분들이 노력하신 덕분에 저의 문화탐방은 역사의 아픔을 함께하면서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아까 맨치로 쭈구리 쭈구리!'

사회복지학과  
김창식

### 1. 문화탐방 개요

우리는 새종사이버대학교에서 공개모집하여 선발된 18명의 학우들과 인솔 교수님과 학교 관계자 6명을 포함하여 전체 24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탐방 목적은 일본 큐슈 지방의 여러 현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대적 유물과 문화적 잔재를 둘러보고 우리 조상과 민족의 얼과 긍지를 되새김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천공항에서2019년 6월 26일 08:00 시에 일본 후쿠오카행 KE7873편으로 출발하여, 4박5일간의 여정으로 문화 유적을 살펴본 후 2019년 6월 30일 22:3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KE0782 편으로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출발 시 가졌던 기대와 흥미를 그대로 돌아와서도 느끼고 있음은 여행이 즐거웠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현지의 장맛비 때문에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모두 유쾌하게 지내며, 다친 곳 없이 귀국 항공편의 수하물 찾는 곳에서 웃으며 다시 만날 인사를 하는 행복감도 있었다.

본 기행문에서는 우선 우리선조들의 체취가 있는 유적을 살펴보고, 일본의 산업적 유물, 일본의 종교적 유산 그리고 둘러본 관광 명소 등으로 구분하여 탐방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 2.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

문화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유형과 무형의 모든 흔적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다. 역사적 기록 안에서 기억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구화로 전래된 문화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행히 우리 탐방단이 방문한 대부분의 유적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물리적 흔적이 있는 곳이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 1) 우리 선조들의 얼과 안이 있는 곳

##### - 후쿠오카 형무소

이곳은 29세 나이에 한글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생체실험으로 돌아가신 윤동주 시인이 갇혀 있던 형무소이다. 비록 지금은 재건축된 구치소이지만 윤동주 시인의 나라사랑 한글사랑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

이곳 큐슈지방 한인 거류민단이 모금을 하여 강제동원 되어 이 지방에서 돌아가신 우리 국민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한 위령비이다. 자연숲 공원의 호젓한 길에서 오솔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 석조 탑으로 만들어진 위령비가 있다. 우리 모두 함께 희생 영령들을 위하여 묵념을 올렸다.



**- 원폭자료관(전쟁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원폭자료관)**

나가사키 시내 공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1945년 8월 9일 11:02 시에 원자폭탄(Fat Man이라고 불림)이 투하된 정확한 위치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공원 안에는 국제 문화회관이 있고 원폭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지하 2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이 있어 1945년 8월 9일 원폭에 의한 피해의 '살상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목표로'라는 주제로 피폭의 참상을 비롯하여 원폭이 투하되기까지의 경과, 피폭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가사키의 변화모습과 핵무기 개발의 역사, 평화추구 등 스토리를 갖추어 전시되어있다.

**- 조선통신사상륙 기념비**

야마구치에 있는 '2016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는 1404년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 사절단이 일본 땅에 발을 내디딘 곳이자 일본 도착 후 머물던 시모노세키 공관에 세운 기념비이다. 기념비에는 각국의 언어로 상세하게 모든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그 당시 배를 정박하던 곳에는 닻이 그대로 있어 이곳이 바로 역사의 산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통신사는 우리나라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고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 도산신사와 이삼평 비**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도공 이삼평을 기린 일본도자기의 조상으로 모신 도산신사를 관람하였다. 세계적 도자기 마을로 만든 '아리타 자기'의 모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삼평비는 1917년 건립되었다. 백제문화 유입을 인정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 쿠시다 신사**

헤이안 시대에 건립된 유서 깊은 신사 '기온 야마가사'라는 일본 3대 마츠리 중 하나의 중심지인 신사이며, 이곳은 가슴 아프지만 명성 황후를 시해한 칼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2) 일본의 산업적 유적****- 군함도 (해상상태 악화로 디지털 박물관 관람으로 현지답사 대체)**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현 나가사키 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 군함을 닮아 '군함도'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하시마'라고 한다.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이곳을 개발, 탄광 사업을 실시하며 큰 수익을 올렸다. 1950~60년대 일본 석탄 업계가 침체되어 1974년 폐광된 후 무인도로 남아있다. 더불어 군함도는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당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강제징용피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가 간 합리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매우 씁쓸하다.

**- 나가사키 조선소와 시모노세키 야하타 제철소**

이 두 곳의 조선소와 제철소는 일본 중공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국부를 쌓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강제적 노동환경에서 오는 차별적 대우와 희생을 감수한 곳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에서 많은 전쟁무기와 물자를 만들어 많은 돈을 벌어서 일본의 비약적 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기도 하다.

**3) 일본의 종교적 문화유적****- 오우라 천주당**

일본 막부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같은 결속된 세력의 확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9세기 초에 포르투갈 사비에르 신부를 통하여 전해진 천주교를 박해하고 중심신도들을 순교하게 하였다. 이 성당은 순교한 26인의 성인들을 봉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다. 순교한 26명의 성인들을 받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으로서 1864년에 건립되었으며, 스테인글라스에서 발하는 아름다운 빛들이 마리아상을 장엄하게 비추는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한다.

**- 타비라 천주당**

교외의 고즈넉한 마을에 자리한 이 성당은 건축양식이 목재 2층으로 매우 특이하지만 여행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정도로 친근감이 있다. 불교신자인 성당 설계자는 26인의 순교자를 추모하며 100년 전에 건축하였다. 다행히 여행자들에게 성당 내부와 박쥐모양의 2층 천장을 공개하는 자비도 있었다. 성물가게에서 팔묵묵주 2개를 사서 신부님으로부터 축성도 받았다.

**- 다자이 텐만구**

유명했던 시인이자 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곳으로, 다자이후에 905년에 건립되었다. 풍신수길과 덕천가강 같은 일본의 국보적 인물을 가르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는 왕의 친애를 받아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규슈의 다자이후에 귀양을 오게 되었다. 그가 죽는 날 매화가지가 교토에서 규슈로 날아와 하루밤새에 6천그루나 꽃을 피웠다는 전설이 있다.

**4) 둘러본 관광명소****- 아리타 도자기 마을**

일본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아리타산 아래로 약 4킬로에 걸쳐서 700여개가 넘는 도자기 상점이 있는 아리타 도자기 마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도자기 마을은 메이지 29년 1896년에 열린 도자기 품평회로부터 시작되었다.

**- 하우스텐보스 헨나 호텔**

일본어로 '헨나 호텔'은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이상한 호텔'이다. 이 특별한 호텔은 세계 최초 로봇호텔로 안드로이드 로봇이 손님을 맞이하며 체크인 수속, 짐 운반, 숙소 안내 등 사람이 하는 업무 중 70%를 자동화하여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 야나가와 뱃놀이**

전체 약 90km나 되는 수로를 따라 베니스의 곤돌라와 같은 배를 타고 느껴보는 일본의 문화이다. 배 한척에 12명이 탑승하고 사공은 긴 작대기로 배를 밀면서 좁은 수로를 빠져 나간다. 물길 위로 지나는 다리 밑으로 갈 때는 뱃놀이 탑승자는 머리를 많이 숙여야 한다. 수로 양변에는 아파트 같은 주거 시설이 있고 물길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 그곳에서 빨래도 한다고 했다. 노래를 힘껏 부르며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규슈국립박물관**

다양한 규슈 지역의 유물의 관람이 가능하다. 박물관은 역사 관련 중심의 박물관으로, 주로 아시아와의 교류에 관한 자료를 전시해 놓았다.





### 3. 에필로그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1960년 일본 후쿠오카 문화회관에서 실황 연주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가 흘러나온다. 묘한 느낌이다. 일본 하면 신사의 나라로 비춰지는데 언제 그렇게 클래식 음악에 미리 눈을 떴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금번 여행 중에 방문한 글로버 가든은 일본과 교역을 하던 네델란드 상인의 저택이었는데 정원에는 일본여인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와 나비부인의 동상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우리나라는 대문을 닫고 당파싸움 하고 있을 때 유럽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명치유신으로 농공상관의 신분 구별의 벽을 없앴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체력이 약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 서양의 주식인 육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자기를 위한 최적화를 하면 개인이나 국가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빨리 달릴 수는 없다. 가끔 돌아보고 속도 조절과 때로는 개혁의 수단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욕구수요를 일본은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지금도 만나는 일본인들은 매우 공손하지만 원지 지나치게 옛날식인 것 같고, 일본어 이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느낌이 이들의 문화적 가치인가 싶다.

차라리 가나자와의 일본인 뱃사공이 다시 생각난다. 빗방울이 봄꽃 흩날리듯 흐드러 지는데 일본인 뱃사공은 우리를 태우고 좁은 수로를 저어 나간다. 기분이 좋아진 탓인지 우리 가요를 신바람 나게 부른다. 우리도 목청 높여 부르며 신나했다. 갑바를 입고 있어서 주위 시야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교각 밑으로 갈 때면 사공이 부르던 노래를 멈추고 소리쳤다.

#### ‘아까 맨치로 꾸구리, 꾸구리!’

분명 우리말이다. (아까처럼 몸을 낮춰 쪼그리세요,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여름철 알알이 잘 익은 옥수수처럼 일본문화탐방 4박5일간 1,000 Km 넘게45인승 버스를 안전하게 운전 해주신 하마다 상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아침동지부터 저녁귀가 시까지 모든 일정을 안내하고 문화역사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주신 가이드 문길주 선생님에게도 무한한 애정을 보냅니다. 우리 일본문화탐방단을 있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이끌어주신 한숙영 교수님과 한재일 팀장님께 진정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정 내내 동거동락하며 웃음을 나눈 학우님들 모두에게 끝없는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저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가며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해 주신 K 팀장님과 배려심 많은 동료 Y학우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사회복지학과  
방정희



일본 후쿠오카에 처음 가보니까 배경이 아름답고 경치도 멋있다. 후쿠오카에 가미카와바타마치에 방문해서 좋은 구경 거리가 많고 수돗물이 깨끗하다. 레이센마치에도 공기도 맑았다. **쿠시다 신사, 후쿠오카 형무소,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도 구경했다. 후쿠오카 형무소가 유명한 곳이었다.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에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일본에서 비가 오락가락 내렸다. 여기저기 **모모치하마, 니시아 마혼마치, 미야마시, 하타카쿠, 홋카이도** 등을 방문했다. 밤의 나가사키 공기는 맑았다. 밖에 풍경도 멋있었다. 저녁은 호텔식으로 뷔페를 맛있게 먹었다. 시내의 도로에 버스와 전철이 나란히 달리니까 신기했다. 선로가 도로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이번 숙박은 나가사키 일승관에서 하룻밤 자고 숙박을 했다. 히라노마치 박물관에 갔다. 과거와 현재 미래였다. 꼬불꼬불한 길에 내려갔다.

**원폭자료관** 박물관에서 돌, 화강, 화석, 도기 등을 구경했다. 아쿠노우라마치에서 큰 배, 기계, 철 등을 보았다. 무거운 도기를 드니까 힘이 들었다. 인류에게 사용해서는 안될 원폭

자료등을 관람할수 있었다. 크루즈 배를 보아서 멋있고 유명하고 신기했다. 크루즈는 침대나 식당, 매점 등이 다양하다. 철물 상자 아래에 들어가보니 구멍이 여러 개가 된다.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있던 기계가 다양하다. 밖에 풍경을 보니 크루즈가 보인다.

미나미야마테마치에서 먹거리가 많았다. 해가 뜨니까 맑은 공기였다. 먹거리 풍경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았다. 천주교회교가 꼭대기에 있는 것을 구경했다. 경치가 아름다웠다. **나가사키 시구라바엔** 계단이 많았다. 마쓰가에마치에서 식당은 중국음식이였다. 여러가지 음식을 먹어보았다. 마쓰가에마치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바로 앞에 크루즈가 보였다.

크루즈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크루즈가 아름다웠다. 나가사키 짬뽕, 면소스, 탕수육, 꽃빵도 화전식이라 돌려서 맛있게 먹었다. 나가사키 시구라바엔 랜드에 올라갔다. 시냇물도 흐르고 꽃도 멋있다. 국화꽃, 해바라기, 많은 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경치도 아름다웠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산꼭대기 끝까지 올라갔다. 밖에 보니까 많은 건물이 많았다.

**글로벌 가든**에서 연못 구경하고 물고기에게 밥을 많이 주었다. 글로벌 가든에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구경하니 상쾌했다. 많은 꽃,분수, 맑은 공기등이 너무 좋았다. 글로벌 가든 수목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다.

군함도에 가려고 배를 타려 했는데 비가 오락가락 내려서 못가고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을 구경했다. 대신 영상체험을 했는데. 박물관을 즐기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 군함도를 보고 싶었는데 일본의 군함도에 얽힌 역사를 생생히 보고 싶었는데 못가서 아쉬웠다. 아름다운 일본 해변가를 보며 전쟁의 역사를 일으킨 일본의 풍경이 클로즈업되어 보인다. 나가사키현 해변가 옆에 유명한 호텔도 많았다. 붉은 노을도 아름다웠다. 저녁은 일본식 스테이크 뷔페식이었다.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다. 일본에서 먹는 음식들이 다행히 입맛에 맞았다. **하에노사키초 호텔**도 경치도 멋있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멋진 풍경에 셀카를 찍는데 일본 호텔 온천이 보였다. 일본 하늘의 붉은 노을이 멋있었다. 아주 참 좋았다.

로봇 호텔로 이동했다. 로봇 호텔 안에서 공연도 연주하는 것을 구경했다. 전기 로봇이 합창단을 열려 바이올린 연주도 유명했다. 카운터에서도 호텔 객실원이 로봇이었다. 참 신기하고 프론트에서도 로봇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일본이 로봇 기술에서 앞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밤 공기도 완전히 좋았다. 숙박하는 곳은 하우스텐보스 헨나 호텔이었다. 다케오로 이동을 하여

관광을 했다. 다케오 시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이고 녹나무를 볼 수 있었다. 녹나무에서 규슈 올레 타케오 코스에서 반드시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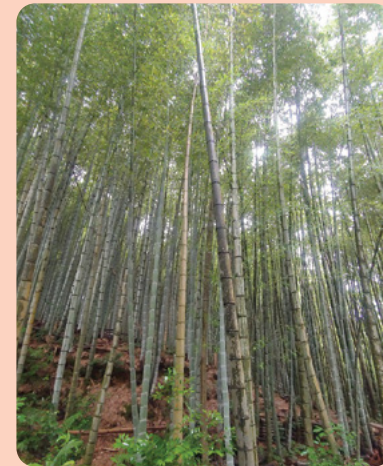
코스로 올라가 보았다. **다케오 신사**는 스쿠네를 비롯하여 5신을 모시고 있으며 주 제신의 타케우치노 스쿠네는 오래사는 장수의 신으로 유명했다. 신사로 들어가게 되면 깔끔하게 포장인 돌길을 따라서 신사로 올라가게 되고 연리지가 사람들을 맞이했다. 다케오 신사 녹나무에서 다케오 코스를 걷다보면 지나가는 곳이 많이 보인다. 대나무 숲이 많고 풍경도 멋있어서 대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대나무가 엄청 크니까 신기했다. 다음 코스로 **타비라 천주당** 성당에 갔다. 일본인들도 성당에 다니고 기도를 했다.

나도 잠시 성당에서 소원을 빌어 보았다. **오우라 천주당이** 산꼭대기에 있다. 팔각형의 탑신을 가지고 눈에 띄는 돌층계를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천주교회였다. 니시자카의 언덕에서 순교한 26인의 성인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로써 1864년에 프랑스산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스텐드글라스에서 아름다운 빛들이 마리아상을 장엄하게 비추는 경건하고 조용한 교회였다. 중요한 관광명소로 손 꼽혔다. 교회는 벽돌로 지었다. **니시마쓰우라군 아리타조 고비라로** 이동을 했다.

꼭대기로 오르기 전에 철도가 있다. 철도에는 기차나 전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철길건널목으로 건너갔다. 철도가 신기해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아리타 마을 절에 가는 곳으로 갔다. 절에서 소원을 빌었다. 도자기도 많이 전시되어 있고 부처님 불상도 보였다.

아리타 마을 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도시와 지붕들이 보였다. 도산신사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도공 이삼평을 기린 신사이다.



**도조 이삼평비와 도산신사**를 구경했다. 이라타를 세계적으로 도자기 마을로 만드는 아리타 자기의 모태를 만들었다 이삼평비는 1917년 아리타 자기 300년을 맞아 만들어진 것이다. 기와집도 둘러보았다. 하우스 모델도 멋있어 보였다.

**아리타도자기마을**, 도산신사를 보며 일본 도자기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일본에 우리의 도자기 문화를 전수한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다음으로는 씨볼트 족탕에 있는 곳을 구경했다. 씨볼트는 잠시 피로를 풀 수 있었다. 우레시노는 녹채재배지이자 녹차명산지로도 유명하며, 도자기도 유명한 곳이지만 우레시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온천이었다. 온천욕이 따뜻해보였지만 들어가보지 못했다. 카페에 들어가서 카스테라와 차 한잔을 했다.

체스도 다양해 보였다. 다케오시에는 쓰빙가 규덴, 우레시노시, 아리타조 등 천주교와 왕궁, 수목원 놀이기구 등이 엄청 다양해보였다. 화려한 수목원 공원 분수가 많이 흐르고 연못 풍경도 멋있었다. 비가 멎고 햇빛이 나와 쇼핑거리를 구경을 했다. 쇼핑거리에 와서 젤리와 손수건 등 내가 필요한 만큼 기념품을 많이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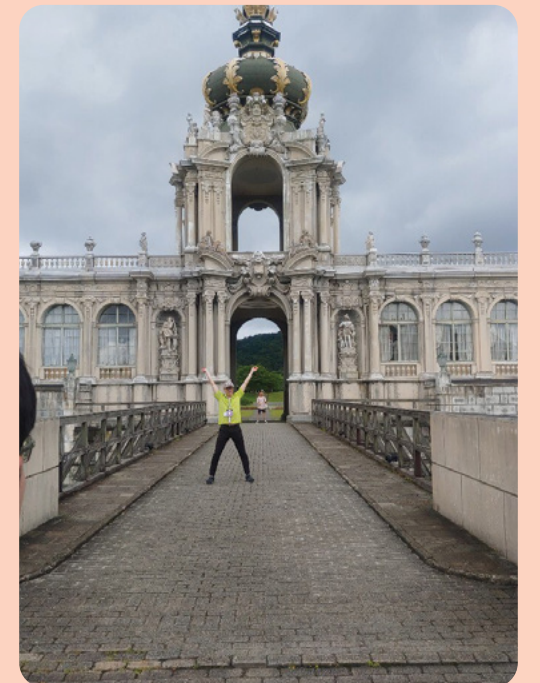
**다케오도서관**에서 일본 스타벅스 카페로 향했다. 스타벅스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카페 도서관에서 책 구경을 했다. 도서관이 여러 군 데가 있다. 일본에 관한 책들을 보았다. 다음에 와타야벳소우 호텔 온천으로 향했다. 물이 완전 따뜻했다. 온천 입구 쪽에 중앙에 루비가 달렸다. 루비 인증샷을 찍었다.

미인피부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우레미노 온천마을에 위치한 와타야벳소우는 3만평 대지에 넓은 일본 정원을 비롯하여 일본풍의 온천이 많이 보였다. 따뜻한 온천, 야외 온천도 많이 있었다. 와타야 벳소우는 유명한 고급 호텔이었다. 숙박하는 곳이 엄청 좋았다. 저녁에는 가이세키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일행은 이야기도 하며 하고 싶은 말, 자기소개를 나누었다. 아래에 내려가 보니까 온천이나 목욕을 무료로 하는 것이었다.

캄캄한 밤이 되자 야경도 멋있었다. 숙박을 하기 전에 일본 끼운을 갈아입고 온천으로 이동했다. 온천 안에서 몸을 씻고 탕 속으로 들어갔다. 온천탕에 들어가보니 완전히 따뜻하고 너무 좋았다. 밖에서도 온천 대욕장 안에 들어갔다. 밖에서도 따뜻한 물이 나와서 엄청 따뜻하고 너무 좋았다. 다음은 **야나가와로 뱃놀이**로 이동을 했다. 유유히 배를 타고 야나가와로 둘러보는데 일본집들이 많이 한눈에 보여 관광을 즐겼다.

장어공양비는 야나가와에서는 매년 7월의 비의 옆 수로에 장어를 방생하고, 명물 요리인 장어를 공양하는 비가 있었다. 도쿄의 유명한 작가도 보였다.

도쿄 하세켄 문학비는 유명한 작가 하세켄을 추모하는 문학비로 그가 유난히도 좋아했던 두부 형태로 만들어졌다. 절벽에 핀 꽃은 영주 타치바나가의 별저에서 발견된 꽃으로 저택내에는 국보급의 역대 지방 영주의 유품이 진열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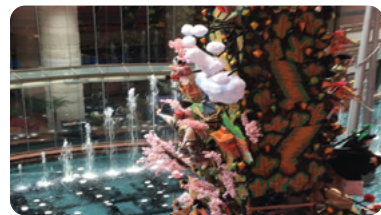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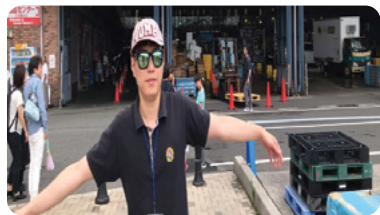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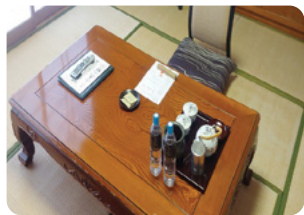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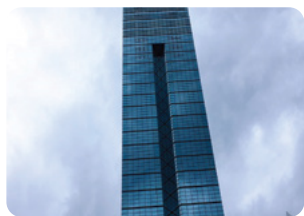


다자이후텐만구도 둘러보았다. 학문과 문화의 신을 모신 다자이후로 유명했다. 학문의 신을 모시는 곳으로 다자이후 905년에 건립되어 현재의 본건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스가와라 노미치자네는 왕의 친애를 받아 일찍 높은 지위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규슈의 다자이후에 귀양을 오게 되었다. 매화지기가 교토에서 규슈로 날라와 하루밤새에 6천그루나 꽃을 피웠다. 매화는 해마다 다른 지역의 꽃보다 먼저 봉오리를 떠뜨리는 것이었다. 다자이후텐만구 다음에는 국립 규슈박물관을 관람했다. 국립 규슈박물관에는 유물과 아시아와의 교류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에스컬레이터가 엄청 길고 산과 넓은 정원까지 길었다.

규슈박물관에 입장하자마자 중앙에 헤드폰을 끼고 번호를 누르면 전시되어 있는장식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국립 규슈박물관에서 쇼핑거리도 즐겼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샀다. 다음 코스는 후쿠오카 타워로 향했다.

후쿠오카는 모모치해변가도 공기가 맑고 멋있고 아름답다. 후쿠오카 타워는 높이가 234m의 정상각형 타워로 고층까지 올라갔다. 후쿠오카 타워 입장 후에는 고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다. 건물 고층까지 인공산을 찍고 사다리처럼 건물과 해변가도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리고 후쿠오카 타워에서 소원 성취하는 편지를 썼다. "모든 일을 잘 되게 다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 글을 썼다. 후쿠오카 타워 스템프를 찾아서 도장을 찍었다. 아래층에 내려가 보았다. 아래층에는 상품 뽑기와 신기한 디지털 광고가 다양했다. 광고 속에 야구 공을 던지니까 실제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광고에서 보고 깨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등장해서 사진도 찍었다. 스파이더맨이 화려했다. 후쿠오카 타워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범선에 비유하여 향해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전망대는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초만에 1층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었다. 고속 엘리베이터는 후쿠오카 타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였다.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호텔로 이동해서 숙박을 했다.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호텔은 모모치해변가도 보이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적합하고 유명한 호텔이었다. 1053개의 객실은 고급감을 느끼는 호텔이 엄청 좋았다. 야카마 신궁을 관광했다. 야카마 신궁은 안도쿠 왕을 모시는 신궁이고 역사적 으로는 조선 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어 왔다. 신사는 아름다운 빨간색 문을 상징적으로 가졌다. 단체 사진도 찍었다. 다음은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로 시모노세키 공관에 세웠다. 기념비에는 배를 정박하던 곳에는 닻이 그대로 있어 역사의 산 현장라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시모노세키 시장에 가서 다양한 농수산물을 구경 했다. 시모노세키 시장에는 먹거리가 엄청 많았다. 바닷가나 다리를 건너가서 산책을 즐겼다. 바닷가로 경치나 공기가 완전히 맑았다. 그 다음은 하타야체철소로 향했다. 하타야체철소는 사무소 전망대에 있는 철물과 철도 등을 전시 했다. 다음은 캐널시티에서 쇼핑하고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 했다. 캐널시티에는 유명한 곡과 함께 음악분수가 나오는데 아름답고 신기했다. 향수 시향하고 쇼핑구경거리도 즐겼다. 해외문화탐방으로 여행을 와서 일본이란 나라를 조금이나마 보고 느꼈다. 역사로만 배운 일본!! 역사를 교훈 삼아 미래에 우리는 한일 관계에서 일본을 좀 더 알아야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처음 가본 일본이란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여러 박물관들에 잘 보관된 역사의 파편을 보며 그들의 생각도 왜곡된 시각이 아닌 진실된 역사를 보는 역사인식을 가지길 간절히 바래본다.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사회복지학과  
신종희

2019년 6월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 학우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만나서 일본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일본 날씨에 대해 말하는 등 일본으로 갈 생각에 모두 기분이 들뜨고 설레보였습니다. 또한, 저는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도구가 보관되어 있는 '쿠시다신사'와 '군함도'를 직접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좋았습니다. 이러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 국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일본 해외탐방에 설레는 모습>

먼저, 우리는 쿠시다신사로 향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둘러보았지만 후쿠오카를 수호하는 신이 모셔져 있는 곳과 경복궁 건천궁 옥호루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인 '히젠도'는 아쉽게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쿠시다신사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더 생각하고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뜻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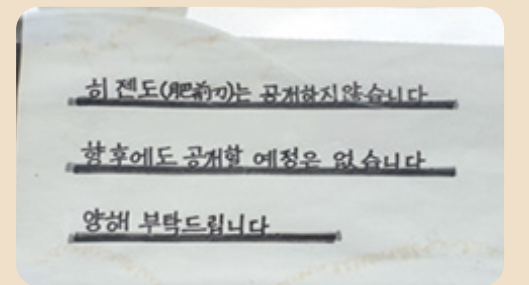


<후쿠오카 공항 내부>

그리고 윤동주와 그의 사촌 송몽규가 수감되었다가 옥사한 후쿠오카 형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외관으로 보았는데, 후쿠오카 형무소는 윤동주 시인의 고통과 비애가 깃든 곳인 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순간 억울하게 죽은 넋을 위로해 주는 묵념을 마음속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에 갔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미키케 탄광 등에서 일하다 숨진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자를 기리는 추도비였습니다. 추도비를 보면서 그 당시 강제징용으로 억울하게 갔던 사람들의 아픔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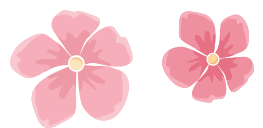
두 번째 날이 밝고 우리는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곳인 원폭 자료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 폭심지에 1955년 설립한 박물관입니다.



<쿠시다신사로 가는 길!>







궁극적으로는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 기념관과 나가사키 평화공원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과 비인도성, 전쟁의 비참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45년도'가 등장하면 원폭 투하 시간인 11시 2분에 멈춰진 벽시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에 약 2만명의 조선 사람들이 피폭당했고 그 중 1만여명은 목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슬펐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원폭자료관 입구>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실제크기> <오우라 천주당에서 찍은 단체사진>

그 다음 오우라 천주당에 방문했습니다. 보는 순간 건축물이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건축을 대표하는 고딕양식으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식되어있어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셋째 날은 도잔신사에 방문하였습니다. 1592년 일어난 정유재란 때 왜국으로 잡혀간 조선의 도예공 이삼평을 모시는 신사입니다. 신사는 1658년에 만들어졌으며 이삼평과 번주였던 나베시마 나오시게를 모시는 곳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도잔신사를 보고 난 후 우리는 아리타도자기 마을에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도자기에 많은 흥미와 관심이 있어서 기대가 높았습니다. 역시나, 식기, 미술 공예품 등 멋지고 은은한 도자기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자기가 구원진 산지로서, 사람들이 직접 제작하고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차 마시는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 다기세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이한 도자기들을 둘러보면서 할머니가 손수 직접 만드신 다기 주전자를 구매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기 주전자를 사용해보니 일본의 향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출신 도공인 '이삼평'이 모셔져 있는 신사> <다케오신사 내부 및 배경>

그 다음 다케오신사에 갔습니다. 신목으로 추앙되고 있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보는 순간 정말 웅장하며 위엄 있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장수, 건강, 병 없이 건강함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의 건강 및 행복을 위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및 모든 학우들 분의 행복과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넷째 날은 제가 정말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우선, 성을 둘러싼 수로에서 하는 뱃놀이로 유명한 야나가와에서 뱃놀이를 했습니다. 타면서 배를 운행해주시는 분이 한국 노래인 안동역에서, 아파트 노래 등 몇몇 곳들을 불러 주셔서 무척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발음도 거의 정확할 뿐만 아니라 노래를 잘 불러주셔서 깜짝 놀랐고 다같이 손뼉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보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자이후텐마구에 방문한 순간 거의 모든 건물들이 신기했습니다. 학문을 모시는 곳으로 입구에는 소의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의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여러 학우들과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많은 사진들을 찍어 추억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후쿠오카 타워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롯데타워 같이 높이가 234m로 높은 타워로 후쿠오카의 전체 전망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23층 전망대를 올라가서 그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밑의 전망대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아찔했지만 계속 보니 장관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즐겁고 신났던 야나가와 뱃놀이> <후쿠오카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멋진 광경>

드디어, 도미나 방어의 어획량으로 유명한 가라토시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의 천국인 이 곳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북적였습니다. 저도 싱싱한 해산물을 그 자리에서 보고 둘러보았습니다. 특이한 초밥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지만 그 때 속이 안 좋아 먹어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고 다양한 해산물과 초밥들을 봐서 재미있고 신난 하루였습니다.



<가라토시장의 다양한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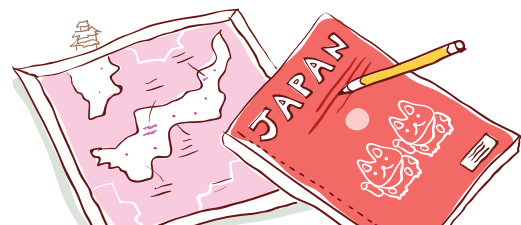
마지막 날에 우리는 캐널시티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한 어뮤즈먼트 시설과 쇼핑물, 복합 예술공간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저도 한껏 들떠서 학우분들이랑 같이 상점들을 방문하면서 가족, 친구들 등에게 줄 선물을 살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기념품들을 구매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이 다가오느라 더운 것을 대비해 매화가 그려진 부채가 정말 저의 마음 속에 쏙 들었습니다.



<캐널시티의 분수쇼>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를 보면서 한국과 같은 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해외탐방에서 짜여진 일정표(이동시간, 이동수단, 호텔, 식사 등 모든 것이 기대상이어서 무척 즐겁고 행복한 탐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탐방을 위해 힘써 주신 한숙영 학생지원센터장님, 한재일 학생지원팀장님 및 학교 관계자들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학우분들과 다양하고 좋은 일본 탐방이 저의 문화적 경험을 쌓게 되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문화탐방을 운영하고 개최해주신 학생지원팀에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 많은 학우들에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문화탐방을 권유하고 추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우들이 해외문화탐방을 접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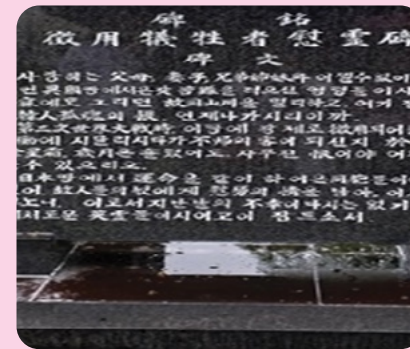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사회복지학과  
박형순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2018년에 입학 했습니다.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면서 눈에 뵈던 해외탐방을 보고 1학년 때 도전하러니 2학년부터라는 안내를 받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학교특강, MT, 강의 포인트 등 2학년이 되면서 후배도 추천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 해외문화탐방 1일차



윤동주 시인이 갈려있던 형무소도 둘러보고

수원에서 4시 30분 인천공항 행 리무진을 타고 “해외연수 탐방”은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오카국제 공항에 내리면서 시작되는 일본 탐방! 후쿠오카 형무소를 보고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를 들렸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의 어른들이 징용을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울컥 했습니다. 꼭 들려서 술 한잔 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많은 인생 타국 땅에서 강제 징용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께 “타국 땅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 2일 차 (6월 27일 목요일)

대한민국의 국모를 살해한 칼을 모셔 놓은 곳을 들렸을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듯 아팠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입니다. 초등학생 참배객 한명씩 고인에게 묵념하고, 인사말도하고, 노래 부르고 헌화(종이학 꾸러미를 걸어 놓는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본은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을 때였다. 우리 국민은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데 그리도 힘들게 하고는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건 안타까워 했다. 바로그날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투하된 자리



우리나라 희생자 위령비 꼭 들려서 고생하신 분들께 묵례를 올리고 싶었던 곳입니다.



나가사키 조선소 시료관, 오우라 천주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세먼지 강사과정 교육 중 앞으로 로버트 세상이 바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신 관장님을 보면 꼭해드리고 싶은말 “일본의 호텔은 벌써 로버트로 무인 호텔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 무인 호텔을 이용하게 해주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3일 차**

사가타비라 천주당 성당, 도잔 신사, 타케오 신사, 녹나무, 씨 볼트 족탕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원에서 내가 잘 읽던 동화 중 나비부인의 작가인 푸치니 동상과 나비부인의 동상을 보고는 매우 반가웠다. 다게시 도서관에 들려 나서 나비부인 (마담초초, 마담버터플라이)의 흑백의 원서도 찾아보고 웅장한 도서관 어른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이 분리되어 있어 너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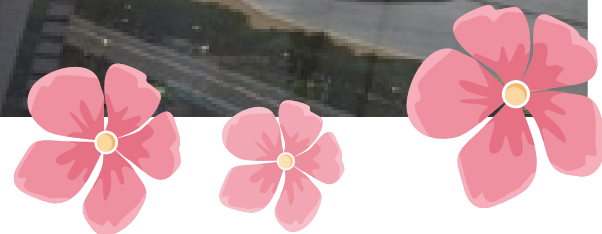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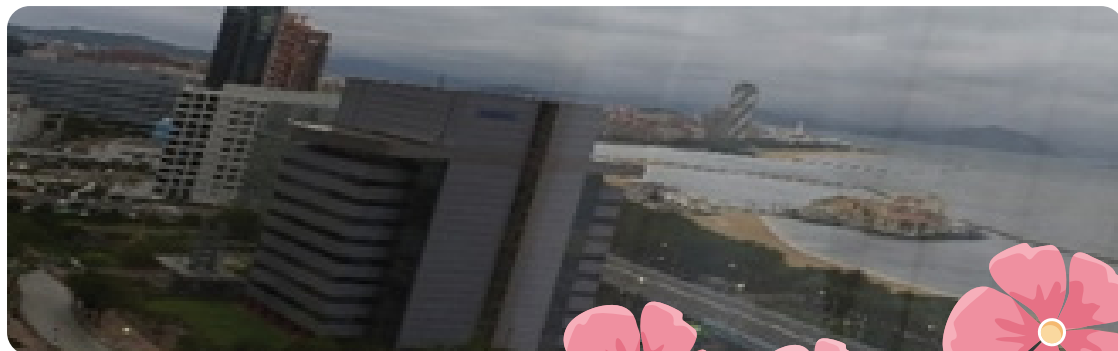


**4일 차**

우레시노 후쿠오카 동양의 베네치아 야나가와 뱃놀이 길이 930m 깊이 1m 잘 만들어진 수로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부른다.

다자이 후텐만구를 들리고, 큐슈국립박물관을 들려 대마도에서 한국인 소씨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을 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모치 해변 & 후쿠오카타워( 234m)를 전망대를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롯데 타워와 비슷했다. 주변 환경은 모모치 해변과 전망이 아주 좋았다. 창은 안에서 밖은 보이고 밖에서 안은 잘 보이는데 특징이다. 일본 여행에서 나의 심신을 많이 쉬게 해준 호텔 숙소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5일차 (6월 30일)**

후쿠오카에서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은 탓인지 5시부터 잠이 깨어 창문에 커튼도 열어 놓고 전경도 즐기며 맑고 가벼운 머리로 여름방학 수강하는 과제하고 MBTI 강사과정 과제하고 해외탐방을 정리해보고 마음도 정리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탐방하고 저녁엔 온천을 즐기고 푹 쉬고 살맛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아카마 신궁,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를 둘러본 후 가라토 수산시장에 들려 초밥의 최고 상품인 복어회 초밥, 참치뱃살 초밥, 토로 초밥, 최고의 맛 오토로 초밥, 주토로 초밥, 성게 알 초밥도 보고 1개 당 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최고의 초밥을 먹어보는 기회였습니다.



아하타 제철소, 캐널시티 하카다를 둘러본 후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의 멋진 프로그램 “해외문화탐방”을 만드신 분께 감사드리며 더 넓은 안목으로 넓은 세상을 보라고 지원해 주시는 멋진 학교, 학생들에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숙영 센터장님, 한재일 팀장님 ! 언제 어느 행사에서 봐어도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많은 학우님들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세종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종사이버 대학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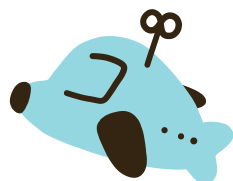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사회복지학과  
박은서

1년을 꼬박 기다린 세종사이버대학교의 해외문화탐방, 드디어 인원에 선발이 되어서 다녀왔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4박 5일의 일정은 빡빡하고 여유로움이 없는 일정이었지만 일본 큐슈의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슬픈 역사(일제강점기) 관련 역사문화탐방을 체험하고 왔다. **1일차**의 일정은 [쿠시다 신사→후쿠오카 형무소→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를 다녀왔다. 쿠시다 신사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칼은 볼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장소이기도 했다. 그리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다녀왔다. 형무소를 직접 들어가보지는 못하고 그 주변장소에 대해 설명만 들었다. 고 윤동주 시인이 옥사한 곳이라고 한다. 들어가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다. 후쿠오카 현 오무타 시에 위치한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를 다녀왔다. 무한도전에서 위령비를 기리러 다녀온적이 있는데 내가 다녀온 곳과는 다르지만 위령비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그와 동시에 날씨도 어두컴컴하고 비도 많이 내렸었는데 날씨와 내마음이 겹쳐 더욱더 슬프게 느껴졌다. 모든 조선인 징용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묵념을 하고 돌아왔다.

**2일차**에는 [원폭자료관→나가사키 조선소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오우라 천주당] 원폭자료관은 조금 생소했다.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이 떨어진 정확한 위치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는 이 박물관은 원폭이 떨어진 당시의 시간으로 멈춰있는 시계를 시작으로 피해를 실상을 보여준다. 첫날에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보고 와서 그런지 ‘굳이 원폭자료관을 갈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거의 일본어로 되어있고 한국어는 별로 없어서 흥미는 느껴지지는 않았다. 나가사키 조선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의 밀명을 받고 군함을 건조하던 군수 산업으로 크게 발전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소도 다녀왔다. 그 유명한 전함 무사시를 건조한 곳도 바로 이곳이며, 전쟁을 발판 삼아 크게 성장한 기업인 만큼 많은 감정이 느껴지는 견학장소였다.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은 가장 인상깊은 장소였다, 직접적으로 보고 싶었지만 은 날씨덕에 가지는 못했고, 매우 아쉬웠다. 메인 이벤트가 군함도라고 할수 있었는데, 안전을 생각해서 대신 박물관으로 다녀왔다. 군함도를 VR로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정말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것만 같았다. 어쩌면 직접 다녀온것보다 현장감이 더 느껴졌고, 영상을 8개 정도 있었는데 6개만 보고 말았다. 둘러보는 건 좋았지만 휴우증이 있었는데 어지럽고 메스꺼웠다. 직접 보고 오지 못해 다같이 모여서 한국어로 번역된 영상도 추가로 봤었는데, 다들 아쉽고 실망한 마음이 크셨는지 영상을 보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일정이 빡빡했던 터라, 영상을 보면서 저절로 눈이 감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후에 오우라 천주당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다. **3일차**에는 [타비라 천주당→아리타 도자기 마을→도산 신사와 이삼평비→다케오 신사] 타비라 천주당은 조개껍데기를 구워 벽돌을 만들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붉은색이



인상적인 성당이다. 일본 성당 건축의 대부라고 불리는 테츠카와 요스케가 설계하고 시공한 성당이라고 한다. 타비라 천주당의 정면에는 팔각형 모양의 돔 종탑이 솟아 있는데 매일 아침 6시, 정오12시, 저녁6시에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한다. 훌륭한 외관과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와 아치형 구조는 황홀하게 만들었다.

아리타 도자기 마을은 마을 전체가 큰 도자기 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마을인 아리타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도공 이삼평의 영향을 받아 도자기 문화가 발전했다고 한다. 도산 신사와 이삼평비는 아리타 마을을 세계적인 도자기 마을이 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한 이삼평을 기리는 이삼평비가 있는 신사이다. 다케오 신사는 가장 오래된 신사이자 3000년 넘는 녹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다케오 신사에는 5신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주 제신인 다케우치노 스쿠네는 장수의 신이라 장수를 기원하는 소원을 빌기 위해 온 현지인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답니다. 다케오 신사를 오르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한 곳은 다케오 신사 녹나무를 보고 무병장수를 빌수 있는곳 다른 하나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실제로 본 다케오 녹나무는 30M가 넘는 웅장한 나무였다.

**4일차** [야나가와 뱃놀이→다자이후 텐만구→규슈 국립박물관→후쿠오카 타워] 야나가와 뱃놀이의 특이한 점은 뱃사공이 사용하는 노가 물살을 가르며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 대나무를 이용하여 땅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다. 수심이 1m 정도로 깊지 않고 수로의 특성상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많아 젓는 노보다는 짚는 노가 유리하다고 한다. 뱃사공 분께서 신나는 한국 트로트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인상깊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자이후 텐만구는 학문과 문화의 신으로 여겨지는 다자이후 텐만구를 모시는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는 현지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꼭 가봐야 하는 장소라고 한다, 상징하는 동물인 소 형상이 있는데 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 있다. 바로 옆에는 규슈 국립 박물관이 있었다. 일본 주변의 아시아 나라들과의 교류와 일본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본의 4번째 국립 박물관이다. 후쿠오카 타워는 123m의 3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시간만 70초나 걸릴 정도로 높은 타워이다. 타워에 올라서면 주변 건물들과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였다. 타워에서 바라보는 모모치 해변은 필수 관광 코스라고 한다. 일본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장소인 이 인공섬은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달라서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인기가 높다고 말씀해주셨다. 5일차[아카마 신궁→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카라토시장] 아카마 신궁은 1185년에 지어져 벌써 1000년에 가까워지는 아카마 신궁은 일본에 방문한 조선통신사들의 객관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빨간색 문의 귀퉁이에는 화재를 막아준다고 하는 물고기꼬리 모양의 장식이 있다. 이를 료칸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용궁’ 이라고 한다. 무사들의 무덤도 볼 수 있고 유명한 귀가 없는 호이치의 불상도 볼 수 있었다. 카라토 시장은 우리나라의 소래포구와 비슷한 느낌이 시장이며, 가성비 좋은 100엔 초밥으로 정말 다양한 초밥을 관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초고급 참치를 맛을 봤는데 입안에서 살살녹고 학우님들과 나누어먹으면서 참치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쇼핑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우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상담심리학과  
박희영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일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신청한 북큐슈 해외문화탐방은 나에게 일본 문화를 보고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일차**에 후쿠오카 도착 후 쿠시다신사는 헤이안시대에 건립된 유서깊은 신사로서 기온 아마가사라는 일본 3대 마츠리 중 하나의 중심지인 산사이며 명성왕후를 시해한 같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가슴 아픈 곳이었다. 운동주시인이 옥사한 후쿠오카형무소를 외관으로 보고 형무소 주변을 걸었으며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에서 묵념으로 우리 징용희생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였다. 하늘도 같이 하신 분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마음이 한층 더 무거운 첫날이었다.

**2일차**는 1955년 설립한 원폭자료관을 관람하였으며 “1945년 8월 9일”, “원폭에 의한 피해의 실상”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목표로” 라는 3가지 주제로 피폭이 참상을 비롯하여 원폭이 투하되기까지의 경과, 피폭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가사키의 부흥모습과 핵무기 개발의 역사, 평화회귀 등 스토리를 갖추어 전시하고 있다.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곳 자료관의 주제라 할 수 있다. 나가사키조선소 견학 또한 전쟁으로 인해 성장한 기업을 보는 것도 많은 생각을 남기는 장소였다. 오우라천주당의 관광은 순교한 26인의 성인들을 봉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고딕과 바로크양식이 혼합된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탐방하였다. 마리아상을 장엄하게 비추는 경건한 곳이었다. 오후의 일정은 이번 문화탐방의 중심인 군함도를 중심으로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 당한 곳을 탐방하려 하였으나 기후 악화로 배가 결항되어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으로 가서 영상체험등을 통해 군함도 생활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박물관이었다.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또 한번 가슴 아픈 곳이었다. 군함도 결항으로 오우라천주당 인접해 있는 글로버정원을 거닐며 메이지 시대의 서양식 건물과 대조되는 일본문화를 느꼈다. 이날 숙박한 헨나호텔(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상한 호텔)은 세계 최초 로봇호텔로 안드로이드 로봇이 손님을 맞이하며 체크인 수속 및 숙소 안내 등 사람이 하는 업무중 70%를 자동화하여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곳으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로봇 연주회 또한 신기한 장면 중 하나였다.

**3일차**에는 히라도로 이동하여 타비라 천주당 성당을 관람하였다. 성당 건축에 종사한 테초카와 요스케가 설계한 성당(박쥐천장)으로 박쥐날개를 연상하게 하는 천장은 인상깊었다. 성당 밖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죽어서도 신부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신자들의 무덤이다. 우리와 같이 동행한 학생들 중 신자들은 신부님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쁨이 배가 되었다. 성당 관람 후 아리타로 이동하여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도공 이삼평을 기린 도조 이삼평비와 도산신사를 보았다. 이삼평은 아리타를 세계적 도자기 마을로 만든 “아리타 자기”의 모태를 만들었으며 이삼평비는 1917년 아리타 자기 300년을 맞아 만들어진것이라 한다.

30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녹나무는 사가현의 유명한 나무 100선에 들어갈 정도로 아름다우면서 보는이에게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나무로 카메라에 한번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나무였다. 다케오에 있는 작은 도서관 또한 우리나라 시골과 다른 함께 하는 교육의 의미를 보게 되었다. 이날 숙박한 일본의 3대 미인피부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우레시노 온천마을에 위치한 와타야벳소는 3만평 대지에 넓은 일본정원을 보유한 일본풍의 온천료칸이었다. 멋진 자연환경과 일본풍의 다다미방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노천탕에서의 온천을 즐기고 다다미방에서의 숙박은 일본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 석식인 가이세키식은 화려한 일본 코스요리를 경험하는 특별한 날로 기억되었다.

**4일차**는 야나가와로 이동하여 유유히 배를 타고 느껴보는 일본의 문화 “야나가 와 뱃놀이 관광”을 즐겼다. 특히나 뱃사공의 한국노래는 한국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점심으로 야나가와 명물 요리인 장어요리를 맛보았다. 다자이후로 이동하여 학문과 문화의 신을 모신 다자이후텐만구를 관람하였다. 다자이후 텐만구는 유명했던 시인이자 학자이며 철학자였던 菅原道真(스가와라노 미치자네, 845-903)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곳으로 다자이후에 905년에 건립되었다. 현재의 본전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가와라노미치자네는 왕의 친애를 받아 일찍 높은 지위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규슈의 다자이후에 귀양을 오게 된다. 그가 죽는날 매화가지가 교토에서 규슈로 날아와 하루밤새에 6천그루나 꽃을 피웠다는 전설이 있는데 본전앞에 있는 매화라고 불리우는 꽃나무가 이 전설을 가진 나무이다. 규슈 국립박물관은 2005년 설립된 일본의 4번째 국립 박물관으로 역사 관련 중심의 박물관으로 주로 아시아와의 교류에 관한 자료를 전시해 놓은 곳으로 산과 넓은 정원에 둘러싸여 있어 마치 공원 한 가운데에 있는 느낌을 주어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을 비교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마지막날 숙박장소로 이동하면서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타워 전망대를 탈 수 있었다. 시사이드 모모치 해변에 위치해 있는 높이 234m의 정삼각형 타워로 1988년 후쿠오카시 제정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졌다. 후쿠오카 타워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후쿠오카를 범선에 비유하여 항해시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반투명 거울로 만들어져 있어 ‘미러 세일(Mirror Sail)’이라 불리기도 하는 곳으로 약 70초만에 1층에서부터 123m 올라가는 고속 엘리베이터는 후쿠오카 타워의 자랑거리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잠실 월드컵타워와 비교해보니 월드컵타워가 더 관광지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숙박 마지막날은 5성급 국제호텔로 방에서 보는 모모치해변은 가족과 함께 하였던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해변을 생각하게 하였다.

**5일차**에는 야마구치로 이동하여 탐방한 아카마 신궁은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신궁으로서 8살의 나이로 요절한 안도쿠 왕을 모시는 신궁이다. 역사적으로는 조선 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건너편에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현장이다. 신사는 아름다운 빨간색 문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다.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역사의 현장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는1404년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 사절단이 일본 땅에 발을 내디뎠던 곳이자 일본 도착 후 머물던 시모노세키 공관에 세운 기념비이다. 기념비에는 각각의 언어로 상세하게 모든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그 당시 배를 정박하던 곳에는 닻이 그대로 있어 이곳이 바로 역사의 산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조선후기에는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을 데려오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파견되었다. 아카마 신궁과 조선통신사를 탐방하고 주변에 카라토시장으로 가서 일본의 수산시장을 견학하고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회를 직접 맛볼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시모노세키로 이동하여 시모노세키 야하타 제철소를 견학하였다. 일본정부에서 직접 세운 관영제철소로 제2차세계대전전까지 일본내 철강생산량의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한국인들이 노동에 강제 징용한 사실이 있는 곳으로 무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곳이었다. 후쿠오카로 복귀한 후 대형복합 패션타운 캐널시티를 관광하였다. 운하를 연결해서 만들어놓은 캐널시티는 음악에 맞춰 시간에 따라 분수쇼를 보여주는 붉은색의 광장에서 어른은 물론이고 어린이들도 즐기는 장소이다.

모든 5일간의 여행을 끝내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워지고 있었다. 여행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군함도를 직접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아쉬운 여행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일본문화에 대해서 알고는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학교 선배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과 동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드려가정행안날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120시간의 여행

### -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힐 과거

소방방재학과  
김은희

설렘을 가득안고 시작한 즐겁고 행복하게 다녀온 멋진 해외문화탐방이었지만 보고서를 쓰는 마음이 무겁다. 우리가 다녀온 직후 일본정부의 경제재개로 인한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기대했던 <군함도>를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못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나가사키문화탐방을 신청한 이유는 2015년 유네스코 산업혁명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및 야하타 제철소와 포함되어 있어서였다. 나가사키 지역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원폭투하지로써 피해 자이기도 한 이중적 모습을 담고 있는 지역이다.

나가사키는 메이지 시대(1868~1912) 일본 산업혁명의 시작, 즉 일본 근대화의 원점 이기도하다. 이점을 부각시켜 이 지역을 산업혁명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잔혹한 가해 장소를 산업혁명유산으로 포장하고 자신들의 근대발전에 대한 가치만을 부각시키며 가해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까지도 버린 현장인 군함도와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일본의 관점 차이를 피부로 느껴보고 싶었다. 그리고 조선인징용희생자위령비를 앞에서 아프고 외로운 넋을 위로하고 싶었다.

**6월26일 08:00** 인천공항 출발, 6월 30일 22:35 인천공항 도착 일정으로 4박 5일이다. 한 시간씩만 늦게 출발하고 일찍 도착하는 일정이었다면 더 멋진 여유로운 해외문화 탐방으로 기억되었을 것 같다. 6월 26일 05:30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24명의 미팅을 시작으로 2019 세종사이버대학 일본나가사키 해외문화탐방이 시작되었다.

4박 5일간의 일정을 보면 **1일차** 쿠시다 신사, 구)후쿠오카 형무소, 나가사키 조선인 징용희생자 위령비, **2일차**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미쯔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사료관, 군함도, 오우라 천주당, **3일차** 타비라천주당, 아리타 도자기마을과 도잔 신사, 타케오 신사와 녹나무, **4일차** 야나가와 뱃놀이, 다자이후텐만구, 큐슈 국립박물관, 모모치 해변 & 후쿠오카타워 외관, 5일차 아카마신궁,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카라토시장, 야하타 제철소(구 전망대), 캐널시티 하카타(쇼핑몰)이다. 나가사키 문화탐방 일정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를 지닌 곳들로 엄선된 루트였고, 일본의 근현대의 특징을 지닌 호텔들을 선정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감각이 돋보인 일정이었다. 옥의티 라면 핵심일정인 군함도를 기상문제로 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선을 다한 멋진 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군함도 대신 구라바엔과 군함도 디지털박물관으로 대체되었고, 모모치 해변은 후쿠오카 타워 외관에서 내부관람으로 변경되었다. 군함도 대체일정을 위해 고심한 인솔팀의 노력과 배려가 느껴졌다. 여행이란 늘 변수가 따를 수 있음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이었던 <군함도>를 가지 못한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탐방 장소에는 구) 후쿠오카 형무소, 조선인징용희생자 위령비, 나가사키원폭자료관, 미쯔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사료관, 군함도 디지털박물관, 야하타제철소가 있다. 일제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들이 지닌 의미와 왜 우리가 '강제징용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지, 그곳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운동주 시인과 송몽규가 구속 수감되어 생채실형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쿠오카 형무소>는 정문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곳에 현실감을 주었다. 부슬비가 치적대는 날씨 탓인지 스산한 아픔이 느껴졌다. 구치소를 돌아 나오는 집 울타리에서 만난 활짝핀 꽃을 보며 100여 년 전 제국주의의 비인간적인 행동이 자행되었던 형무소였었다는 흔적을 지우고 있는 현실이 마음 아팠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운동주의 기일인 2월 16일이면 재일교포와 운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분들이 시를 낭독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핀다는 말처럼 과거사 지우기에 급급한 일본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대와 희망을 또 품고 발길을 돌렸다. 계속되는 빗줄기와 함께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에 추모를 하고 내려오는 마음이 꽤 무거웠다. 징용 희생자위령비 비명(碑銘)에 새겨진 비문(碑文)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전해본다.

“사랑하는 부모, 저자, 형제자매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고 이 먼 이국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신 영령들이시여, 몽매(夢寐)에도 그리던 고국산천을 멀리하고, 여기 잠드신 대한인고혼(孤魂)의 한(恨), 언제나 가지리이까. 제2차세계대전시, 이 땅에 강제로 징용(徵用)되어 과혹(過酷)한 노동(勞働)에 시달리시다가 불귀(不歸)의 객이 되신지 어언오십여성상(於焉五十餘星霜), 세월은 흘렀어도 사무친 한이야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일본 땅에서 운명을 같이 하여온 동포(同胞)들이여, 여기에 있어 고인들의 넋에게 위로(慰勞)의 정을 담아, 이 비를 세우노니, 이로써 지난날의 불행이 다시는 없기를..... 애처로운 영령들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1945년 8월 9일', '원폭에 의한 피해와 실상',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목표로'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를 기원하는 원폭자료관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임에도 역사의 전후 맥락을 축소하거나 함구하고 오로지 원자폭탄의 피해에 대한 사실만 부각시킨 진정성과 자기반성이 빠진 평화염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화의 상징인 '종이학'이 의미를 상실한 화려하게 치장한 기념품으로만 보였다. 1850년부터 1910년까지의 일본 중공업(제철, 제강, 조선, 석탄산업)의 큰 변화로 국가의 질을 변화시킨 반세기의 산업화를 증언하고 있는 <미쯔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사료관>. 이 사료관은 1898년에 지은 건물로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당시에도 무사했다고 설명하는 해설자는 친절하고 흠 잡을 데가 없었지만 씁쓸한 감정이 앞섰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에 대해 철저히 은폐하고 있는 미쯔비시에 대한 감정은 냉랭할 수밖에 없다. 점심식사 후 예정되었던 '군함도'로 가는 선박편이 파도가 높은 상황이라 전면 취소 되었고, 내일 출항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며, 선박편도 한 곳만 자리가 있는 상황으로 빠른 결정이 요구되었다. 우리는 내일 일정을 포기하고, 불확실하지만 군함도를 가기 위해 오늘 오후와 내일 새벽을 투자해서 '군함도'를 시도해 볼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오후를 다른 일정들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내일 일정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탐방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가 <군함도>였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에 차질이 생기고,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 더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시도해보자는 의견을 냈으나 군함도 대신 대체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다. 뜨거운 태양이 가득한 오후였지만 '군함도'로 가는 뱃길은 끝내 우리들에게는 열리지 않았다.

군함도 대신 간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에서 'Beautiful Fantastic Gunkanjima'라는 디지털 영상을 보았다. 영상은 일본 산업유산으로서의 군함도의 의미와 가치를 홍보하는 내용 뿐 이었다.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으며, 비인도적이고 참혹했던 어두운 역사는 '외국인들도 한때 동료로 일했다'는 짧은 설명으로 묻혔다. 군함도 리플릿에 쓰여 있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새긴다.'라는 글귀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새기려고 하는 걸까? 어떤 공공기가 또 숨어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탐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이후 3가지 품목 한국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 소식! 왜 슬픈 예감을 틀린 적이 없을까?

야하타 제철소는 청일전쟁 승리의 전쟁 배상금으로 1901년 세운 제철소로 조선인 강제징용의 대표적인 현장이다. 이곳 역시 군함도와 함께 2015년 유네스코 산업혁명 유산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곳이 일본의 부국강병의 디딤돌이었다는 생각에 울컥했다. 그들의 부국강병이 우리 선조들의 수많은 희생을 받고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국력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강제징용의 피해기간을 보통 1939년부터 1945년 까지로 본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참혹한 삶을 살다가 간 강제 징용된 선조들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처참한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불현 듯 떠오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아프게 느껴졌다.

이번 탐방의 호텔들은 매력 그 자체였다. 각각의 특징을 지닌 숙소로써 건축문화재를 전공한 나에게 건축과 문화를 한번에 다 접해보는 아주 멋진 경험이었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전통건축물인 <나가사키 닛쇼칸>의 100만불짜리 나가사키 야경, <하우스텐 보스 헨나 호텔>에서의 로봇 호텔리어들과의 만남, 그리고 로봇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경험하였고,



발대식



군함도 일정 논의



일본에서도 유명한 온천마을에 있는 일본풍의 온천 료칸인 <와타야 벳소우>에서 온천 후에 전통 다다미방에서의 꿀잠.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마지막은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호텔>에서 바라본 모모치 해변의 야경과 야후쿠동묘의 야경 또한 멋졌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통점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힘이 되어 준다는 사실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몸이 불편한 학우님도 함께한 탐방이어서 더 큰 의미와 깨달음이 있었다. 4박 5일의 해외탐방 동행을 용기내어 신청하신 학우님이 존경스러웠고, 이를 수용하고 배려한 기획을 한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센터장 한숙영 교수님과 한재일 팀장님의 씬씀이도 존경스럽다. 또한 일정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수 팀장님의 모습을 보며, 배려의 실천에는 따뜻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고 배웠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것임을..... 함께 보았던 탐방지의 풍경보다 함께한 우리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함께한 모두에게 행복한 순간이었기를 소망한다.

보고서를 일제강점기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다보니 탐방 내내 우울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썼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과 우리의 간극에 중점을 두고 작성했기 때문이다. 사실 4박 5일 내내 멋진 일정이어서 만족스럽고, 즐겁고,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아픔은 마땅히 기억되어야 할 준엄한 역사이며, 끝나지 않은 진실과 고통을 대면하고, 이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 후손인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제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의 사실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만 끝나는 일임을 일본정부가 직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보고서를 마친다.



조선인 징용희생자 위령비



원폭자료관



자기소개 후 인증샷



야하타 제철소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조리 · 서비스경영학과  
나슬녀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미팅 인원파악 꼼꼼히 하시는 한재일 팀장님

1일차 : 쿠시다신사, 후쿠오카형무소

1일차 : 쿠시다 신사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에 있는 신사를 첫 번째 방문하였다. 명성황후가 시해 당시 사용했던 칼이 보관된 신사이다. 이곳은 757년에 세워졌으며, 불로장생과 번성의 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직접 칼을 보지는 못했다.



1일차 : 후쿠오카 형무소 - 구치소 앞에서 본 관경.

나는 윤동주, 송몽규 그리고 그 많은 한국인들이 후쿠오카 형무소로 끌려오는 모습이 계속 맘들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시 나올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형무소로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들

1일차 :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

검은색 대리석 비석 앞면에는 한국식 한자로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가 새겨있고 비석 뒷면에는 한글로 '위령비의 유래'가 적혀있었다. 남의나라에 끌려가서 노동착취 당하다 목숨을 잃은 영혼들의 아픈 마음을 전해주듯이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2일차 : 나가사키 조선소 시료관

태평양전쟁에 사용되었던 어뢰는 물론, 전함 무사시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내원분께서 말씀해주시면 애석해한 '아사마마루'라는 호화여객선이 전시에 전함으로 개조되어 참전했다가 침몰하여 그 호화로운 여객선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사연, 거대한 전함 무사시가 폭침해 수많은 승조원이 사망했다는 사연을 들으면서도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쌀 포대보다 무거운 25kg짜리 쇠망치를 하루에도 수백 번 내리치며 그 배를 만들었을 조선인들의 사연이 더 애석한 건 단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일까? 일본인을 역시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3일차 : 타비라천주당**

나가사키 현 히라도시에 위치한 '타비라 천주당'안의 구경하고 3,000년된 녹나무를 보러올라가는 길에 대나무가 양옆으로 뻗뻗하게 늘어서 있었고, 갑자기 비가 쏟아 지는 바람에 서둘러서 내려왔다.

**4일차 : 야나가와 뱃놀이**

야나가와의 뱃놀이, 실은 성의 주위를 둘러싼 수로입니다. 야나가와시내에는 총연장 약 930km 에 이르는 크고 작은 수로가 그물코처럼 얽혀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로는 옛날, 성채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나치 게 내린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으고, 범람을 막거나 농업용수나 방화용수로 이용되기도 하며,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뱃놀이는 승선장으로부터 (조-보리)수문을 지나, 종점 (오키노하타)까지 약 4.5km, 70분의 즐거운 배 여행으로 한숙영센터장님, 교무팀장님, 이후동차장님, 김인숙학우, 장순옥학우, 신정원학우도 함께 촬영한 모습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듯 제일고생하신 멋진 한재일 팀장님은 앞쪽으로 계셔서 아쉽게도 보이지 않네요.



**5일차 :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지난 8일 오전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아카마신궁 앞 해변의 '조선통신사 상륙유지지' 기념비 모습. 지난 2001년 8월 25일 세워진 이 기념비는 임진왜란 이후 200년 간 12차례에 걸쳐 일본과의 평화우호를 위해 조선에서 파견했던 조선통신사가 11차례 기항했던 것을 기념해 한일 선린우호의 증표로서 기항지점에 야마구치현 지사가 한국 포천의 화강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비문은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친필이다. 이번 일본탐방에서 제일 고생하신 멋진 한재일 팀장님과 함께



**5일차 : 가라토시장**

시모노세키항은 정말 넓게 펼쳐져있고 이곳은 어선과 공업선들이 드나드는 항구같았어요! 옆으로는 창고들과 수리공장? 들이 줄지어있었습니다. 장순옥학우, 박미희학우, 빅희영학우, 신정원학우와 함께한 추억 잊지못할 추억입니다.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청소년코칭상담학과  
장승옥

일본 해외탐방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되어서 기뻐하던 일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후쿠오카공항에 내려 같은 과 정원씨와 일행을 잃고 헤매일 때 운명처럼 우린 짝궁이다를 예감하면서 여행 일정내내 버스 뒷자리에 앉아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들 소중하지만 앞자리에 앉은 중수님 옆자리에서 먹을 것을 공유한 현재님 아서님 역시 감사했다. 공항을 나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딛 일본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준 쿠시다 신사는 헤이안 시대(평안시대)에 건립된 곳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가 유명하다고 한다. 7월1일부터 축제 시작이라 아쉽게도 가마는 공개하지 않았다. 헤이안시대는 794년부터 1185년 까지이니 우리나라에서는 794년에 강남에 있는 봉은사가 세워졌고 쿠시다 신사는 757년에 세워졌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이 보관되어 있는 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첫 날 밤 독방을 차지한 건 좋았는데 온천 다다미방에 덩그러니 혼자 있으려니 쓸쓸함이 밀려왔다. 다행인지 아닌지 그날밤 이후로 독방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둘째 날** 그 유명한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된 현장으로 이동하니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원폭을 투하한 미국, 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 그 덕으로 해방된 우리 나라. 어느 시각으로 이 역사를 바라 보아야 할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한 국민으로서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침략과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의 꽃(나의 의견)이라 일컫는 날씨 덕분에 우리 문화탐방의 꽃 군함도 견학이 사라져 버렸다.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올지도 모를 기회인데 못 내 아쉬웠다. 일제 시대 수많은 조선인이 끌려와 지옥같은 갱도에서 석탄을 캐다 죽어 간 죽음의 섬, 세월이 흘러도 반성이 없는 일본 사회를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도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나라 인접국을 침략으로 부를 채운 일본이 발빠르게 산업세계문화유산으로 자신들을 미화하고 있으니 이 세계에 정의가 있나 싶다. 안타까울 뿐이다. 잠깐 맑게 개인 파란 하늘 밑에 있는 오우라성당에서 사진 찍기 놀이 하면서 우중충한 기분을 걷을 수 있었다.

1571년 포르투갈과 무역을 시작하여 무역항이 된 나가사키에서 그리스도교를 금지한 네델란드와 교역을 허용하여 글로버공원이 만들어 졌고 그 정원에서 맛 본 아이스크림이 기억에 남는다. 빨리 먹지 못 해 줄줄 흘러 내리던 소프트 아이스크림.

**셋째 날**, 아리타 도자기 마을,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 규슈'책과 어느 방송에 '일본속의 한국' '도레인 로드'에 소개된 바 있다. 일본 도자기 왕국의 근원인 아리타가 도자기의 고향이 된 이유는 조선의 도공 이삼평덕분이다. 이삼평 조각상 앞에서 숙연해 진 유홍준님이 떠올랐다. 드라마로도 방영된 '불의 여신 정이' 문근영도 여기 실제 모델 여자 도공이라한다. 열심히 시청한 드라마라 그런지 여기 이 곳이 무언가 낯설지가 않았다. 다시 도자기 마을에 자유여행으로 와서 찬찬히 살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기술을 천하게 여겼는 우리 민족이 새로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자신만의 역량을 마음껏 펼친 도공을 기리게 되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또한 역시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기술자나 노동자를 천시하는 경향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 나라 너네 나라가 어디 있던 말인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가면 민족, 국가로 나누어서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도잔신사의 도자기 문이 인상적이었다. 그래도 백제 도래인들이 여기에서 우수한 문화를 전파했다는 자긍심이 들어 어깨는 으쓱 해졌다. 다음 방문지인 다케오신사에서 문득 느끼게 있다. 저 마다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면서 개개인의 소원은 온 인류의 평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잘난 척하면서 세계평화를 소원으로 빌었다.

우레시노의 명소, 온천마을 와타야벳소에서 여학우들과 속을 공유하면서 야외온천을 즐겼다. 평생 잊지 못할 듯 하다.

**넷째 날**은 여행이 느슨해 지면서 학우들과 친해지기도 했고 여행에서 빠질 수 없다는 뱃놀이를 즐겼다 즉, 야나가와 뱃놀이. 앞에 먼저 간 배에서는 우리 가요노래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우리 배의 뱃사공은 젊어서 인지 아님, 팀이 없어서 인지 일본 구전 노래 덜렁 한 곡 하더니 침묵이었다.

평상시 싫어 하던 엔카라도 들을 수 있나 내심 기다렸는데, 그건 조금 아쉬웠다.

마지막 밤, 후쿠오카 힐튼 호텔에서 여독도 풀고 이제 슬슬 귀국해야 할 때, 용돈 쥐어 준 가족들도 떠오르니 선물들을 사느라 다들 보따리가 한 가득이다. 좋은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해 준 세종사이버대 주체측에 감사 드리고 싶다. 이제 마지막 귀국 날, 문화탐방에서 한 치도 벗어 나지 않는 일정.아키마 신궁 여기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기념비도 보고 카라토시장에서 초밥도 실컷 구경하고 캐널시티에서 커피도 한 잔 하면서 긴 여정하면서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일본 문화탐방을 끝맺는다.

만남이 있으면 끝도 있듯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 와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학기를 기다린다.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청소년코칭상담학과  
신정원

## 〈1일차〉 6월 26일(수)

# 08:00 KEO 187편 인천공항 출발 ✈ 09:25 후쿠오카공항 도착

여행의 기대감과 설렘으로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전혀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는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일행 중 가장 늦게 도착해서 뒤늦은 수속을 밟고 비행기에 올라탔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서야 학우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후쿠오카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흐린 날씨였다. 바로 하카타로 20분 정도 차로 이동했다.

# 쿠시다 신사 [櫛田神社, くしだじんじゃ]



☞ 헤이안 시대(757년)에 건립된 유서 깊은 신사로, 후쿠오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화려한 초대형 가마인 기온야마가사(祈願山笠)가 출발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조선시대 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도 히젠토(肥前刀)가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한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해서 왠지 모르게 숙연한 기분이 들었다.

☞ 신사 건물 앞의 한쪽 귀퉁이에는 테미즈야(手水舎)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신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과 마음의 때를 물로 씻어내는 의미로 대나무 국자 같은 것으로 왼손부터 씻고 나서 오른 손을 씻은 후 다시 왼손에 물을 받아 입을 가신다. 우리나라 약수터처럼 생겨서 간혹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ㅎㅎ

# 후쿠오카 형무소 (現 구치소)

☞ 이곳은 일제 강점기 말 시인 윤동주와 그의 사촌 송몽규가 수감되어 순국한 형무 소(현, 후쿠오카 구치소)가 있던 곳이다. 입구에서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 삼엄한 검문을 하고 있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구치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윤동주와 송몽규의 죽음에 대해 생체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추정이 있다는 가이드분의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일본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

☞ 1995년 '재일코리아 오무타'가 미쓰비시 계열사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숨진 조선인 징용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깊숙한 산 속 공동묘지를 지나 좁고 불퉁없는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빗속 진흙길을 따라 올라간 곳에는 화려함도 웅장함도 없는 위령비가 외롭게 세워져 있었다. 이런 곳에 사람 발길이 닿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후미진 외딴 곳이었다. 잠시 학우들과 함께 묵념을 하는데 내리는 빗소리에 왠지 모를 몽클한 감정이 밀려왔다.



# 나가사키로 약 2시간 20분을 달려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달동네 같은 높은 길을 따라 굽이굽이 한참을 올라가 맨 꼭대기 언덕에 자리 잡은 닛쇼칸 호텔에 도착했다. 첫 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줄 만큼 대욕장에서 바라보는 나가사키의 야경은 실로 황홀하기까지 했다.

## 〈2일차〉 6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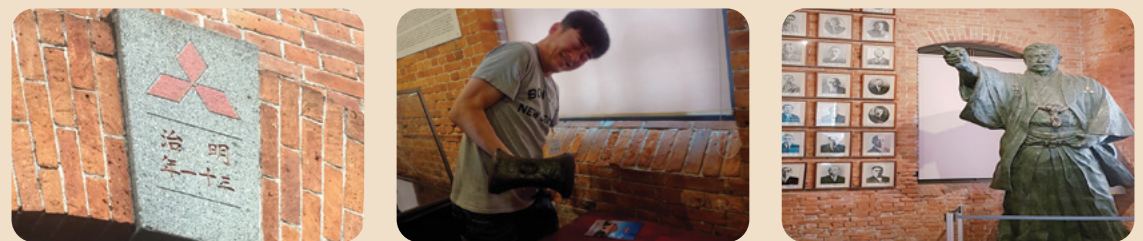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부터 제꼴다. 창문이 크게 흔들릴 만큼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우울했다. 오늘 드디어 군함도에 오르는 날인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불길했다. 비가 잦아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버스에 올라탔다.

# 나가사키 원폭자료관(原爆資料館)



- ☞ 제2차 세계대전 중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 폭심지에 원폭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1955년 설립되었다. 처음 눈에 띈 것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터진 시각 11시2분에 멈춰진 벽시계였다
- ☞ 열선에 의해 엉겨 붙은 유리병과 돌, 방사선의 영향으로 한 눈에 보기에도 끔찍하게 변형된 사람들의 모습 등 피해 실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 ☞ 실제크기의 원자폭탄 모형 '파트 맨(똥똥보)'- 길이 3.25m, 지름 1.52m, 무게 4.5t자료관을 나오면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다. 핵무기 없는 평화를 기원한다는 미명하에 일본 자국민의 피해 사실만 드러낼 뿐, 강제징용으로 나가사키에 끌려가 희생당한 조선인에 대한 어떤 언급조차 없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나가사키 조선소 사료관(長崎造船所 史料館)



- ☞ 1898년에 지어진 벽돌건물로, 미쓰비시 조선소 주물공장에서 사용되는 목제형틀을 만들던 곳을 현재 역사자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다.
- ☞ 조선소에서 사용된 25kg 쇠파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하루에도 수백 번 (남자학우들이 들었을 때 휘청거릴 정도로 꽤나 무거운) 쇠파지를 내리치며 배를 만들었을 당시 조선인들을 생각하니 마치 내 심장을 내리치듯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 ☞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초 창업자인 이와사키





# 오후라 천주당 [大浦天主堂]



☞ 나가사키의 글로버 공원으로 이어지는 언덕길 입구에 있는 천주교회로, 순교한 일본 26인의 성인들을 봉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지어졌고, 현재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내내 부슬부슬 내렸던 비가 마침 그치고 그림같이 청아한 하늘빛에 어우러진 성당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

☞ 나가사키짬뽕(長崎ちゃんぽん) VS 사라우동(皿うどん)

점심에 먹은 하얀색의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짬뽕(ちゃんぽん)과 바삭하게 튀긴 면발에 걸쭉한 소스를 끼얹어 먹는 사라우동(皿うどん)의 대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의 얼큰한 짬뽕 국물이 더욱 간절해지는 순간이었다.

# 글로버 가든(Glover Garden, 구라바엔)



☞ 1863년 영국의 상인 토머스 글로버가 지은 곳이다. 150년이 넘는 유럽풍의 건물 8채와 3만평이 넘는 정원이 있다.  
 ☞ 가장 높은 건물 도크하우스에서 바라보니 나가사키항과 선박도 볼 수 있었다. (나비부인 1막은 나가사키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일본식 집에서 시작된다.)  
 ☞ 오페라 나비부인의 배우 미우라 타마키 동상

# 나가사키 카스테라



☞ 카스테라는 1600년대 일본이 최초로 나가사키항을 외국에 개방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빵이다. 3대째 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당(文明堂). 우리나라 카스테라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서 엄청 부드러운 백설기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곁들인 홍차와 환상궁합이었다.

# 군함도 디지털 박물관[軍艦島 デジタル ミュージアム]

결국 파도가 높아 군함도로 가는 배가 뜨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일본은 안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파도가 0.5m만 되어도 배 운항이 금지 된다고 한다. 이번 북큐슈 여행 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던 군함도 입성의 좌절로 인해 나를 비롯한 학우들의 실망과 아쉬움은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대신 VR과 영상을 통해 군함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함으로써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하지만, 군함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만 홍보할 뿐, 이곳역시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적시하는 조건으로 등재 허가를 해주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한숙영 센터장님의 부연설명을 듣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일본의 파렴치함에 다시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다.

# 하우스텐보스 헨나호텔(変なホテル)



☞ '헨나호텔'은 우리말로 '이상한 호텔'이다. 세계최초의 로봇호텔이다. 호텔 업무의 70% 이상을 자동으로 로봇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체크인 할 때, 정말 직원이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이 아직 생소해서인지 편리하다기보다는 뭔가 인간미 없는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다 뺏기는 것은 아닐지 사뭇걱정스런 마음도 들었다. 로비에서 하루 세 번 진행되는 로봇 오케스트라 연주도 이색적이었다.

<3월차> 6월 28일

# 타비라 천주당(田平カトリック教会)



☞ 1918년 완성된 성당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당을 지은 테스카와 요스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신자였다고 한다. 붉은 벽돌로 조개껍데기를 구워 지어진 성당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검게 그을린 듯 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내부의 모습은 유럽의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에 비해 생각보다 절제된 단출한 느낌마저 들었다. 숨 가쁜 일정 속에 잠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는 심포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 성당 오른쪽에 납골당 - 일반 주민들이 아닌 박해 받아 숨진 신자들의 묘지이다.

# 하리타(在田) 도자기 마을 - 사가현(佐賀県)



일본에서도 유일한 도자기로 만두 도리이

1917년 아리타 자기 300주년 기념비로 세워졌다. 조선시대에 도기를 만들던 도예공 이삼평이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 최초의 백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의 솜씨 좋은 도공들을 납치해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도자기 문화는 후퇴했다고 한다. 도자기 마을 대부분의 상점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거리에 사람들도 거의 없고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그래도 고가의 고급스러운 도자기를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소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밥그릇 하나에 4500엔, 우리 돈으로 5만원 가량했다. 입이 뜨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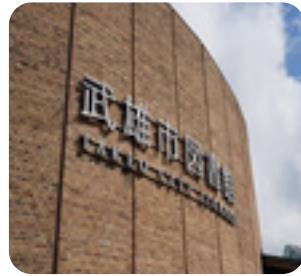
# 다케오 신사



사가현에 위치한 다케오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735년)이다.  
 ☞ 대나무에 둘러싸인 수령이 3000년이 넘는 녹나무이다. 나무의 높이가 30m가 넘는다. 얼마나 큰 지 나무 앞에 서있는 학우의 모습이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 같다.

# 다케오시립 도서관(武雄市図書館)

☞ 작은 시골 마을에 이렇게 멋진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부러웠다. 도서관 내부에 별다방(?) 커피숍이 있는 것도 색달랐다. 맘 같아선 남아있는 일정을 뒤로하고 커피 한 잔에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낭만적인 분위기였다.



# 와타야벳소(和多屋別荘) - 온천 호텔

☞ 일본의 3대미인 피부탕 중 하나로 알려진 우레시노 온천마을에 위치한 료칸이다. 멋진 자연환경과 일본풍의 다다미방을 체험하게 되어 일본여행을 제대로 한 기분이 한껏 들었다. 온천수에 목욕 후, 오일을 바른 듯 미끌미끌한 피부의 느낌이 좋았다.

( 미녀는 온천을 좋아해~~ ♪ )



☞ 가이세키요리 [会席料理] - 작은 그릇에 술, 생선회, 조림, 찜, 튀김, 후식 등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연회용 코스요리이다. 우리나라 한정식 코스요리와 비슷하다.

☞ 다다미(畳)방에서 유카타(浴衣)를 입고 찰칵~~!!

- 유카타 옷깃을 왼쪽이 위로 오도록 입는다. 오른쪽이 위로 오게 하면 수의 입는법

☞ 료칸의 야경 모습(정헌재 스텝 사진 제공) - 실로 감탄이 나올 만큼 황홀한 풍경이다.

<4월차> 6월 29일

# 야나가와[柳川] 뱃놀이



☞ '야나가와'는 '버드나무강'이라는 뜻이다. 강 주변에 흐드러진 버드나무가 인상적이었다. 수로를 따라 유유자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뱃놀이이다. 수로아래를 통과하면서 뱃사공이 '모모타로우상(桃太郎さん)'이라는 노래를 불러 주었는데 귀에 익은 노래였다. 어릴 때 불렀던 '돌~아 갑시다 돌아 갑시다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 하는 멜로디와 같아서 귀가 쫄긋했다. 수로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구성진 뱃사공의 목소리가 때때로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와도 잘 어울렸다.

# 다자이후 텐만구[太宰府天満宮]



헤이안시대 문인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곳이다. 매년 합격이나 학업 성취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합격 부적을 사기 위해 찾는다.

☞ 고신규(청동황소상) - 소의 머리와 뿔을 만지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설이 있어 유독 코가 반질반질 했다. ㅎㅎ

# 큐슈국립박물관[九州国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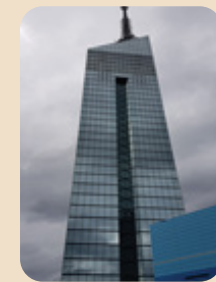
☞ 2005년 설립된 일본의 4번째 국립 박물관. 역사 관련 중심으로 주로 아시아의 교류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다양한 큐슈 지역의 유물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 후쿠오카 타워[福岡タワー]

☞ 높이234m의 정삼각형 타워로, 1988년 후쿠오카 시(市) 제정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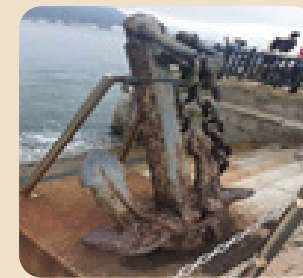
☞ 123m를 약 70초 만에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가면 전망대가 있다.

☞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사이드 모모치 해변이 바라만 봐도 속이 탁 트이는 듯했다.



<5월차> 6월 30일

#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



☞ 시모노세키 지역은 조선 통신사가 일본 내에서 최초로 상륙한 곳으로, 이 기념비는 일본 도착 후 머물던 시모노세키 공관에 세웠다.

☞ 그 당시 배를 정박하던 곳에 닻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역사의 산 현장임을 보여준다.

# 아카마 신궁 [赤間神宮]



☞ 1185년 건립되어 여덟 살 나이로 요절한 안토쿠 왕을 모시는 신사이다. 아름다운 빨간색 문이 1958년에 재건되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 야하타 제철소[八幡製鐵所]



☞ 1901년 일본 정부에서 직접 세운 전범기업 관영 제철소로, 한국인을 노동에 강제 징용한 사실이 있지만 안내표지와 팸플릿 어디에도 재일조선인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 # 카라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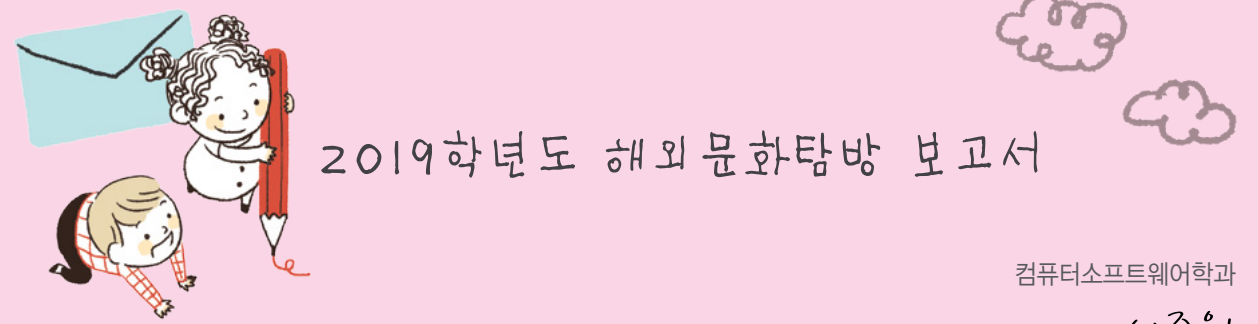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한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싱싱한 회와 초밥들이 준비해 있다. 호객행위의 상인들의 모습이 진풍경이었다. 회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들 생각이 간절했다.



### # 캐널시티[キャナルシティ] Canal city

☞ 운하를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어뮤즈먼트 시설과 쇼핑몰로 복합예술 공간을 갖춘 곳이다. 극단 사계(四季)의 상설무대의 장으로 중앙의 운하와 연결된 야외무대에서는 마치 여행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듯 때맞춰 음악과 함께 분수쇼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로써 4박 5일간의 북큐슈 문화탐방의 막을 내렸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일제 강제징용의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자료를 통해 가까이 접하면서 당시 일제에 끌려간 한국인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을 지 그 거친 숨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기분이었다.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행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제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일본의 행태는 물엿치를 넘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독일이 과거사를 솔직하게 직시한 것처럼,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반드시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무조건 반감을 가지거나 적대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잘못된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관심과 정확히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북큐슈 문화탐방은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만 접했던 일본의 역사 왜곡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서 향후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게 될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절실히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끝으로 5일 동안 늘 노심초사 애써주신 한숙영 센터장님과 한재일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여행을 통해 알게 된 소중한 동기 순옥언니, 만능재주꾼 김인숙학우, 절세미인 서영옥학우, 털털한 신종희학우, 딸같은 박은서학우, 꼬꼬리 김은희학우, 만년소녀 나순녀학우, 패션에 남다른 박형순학우, 절대 안소심한 박미희학우, 문학소녀 같은 박희영학우, 귀감이 되신 김창식학우, 멋쟁이 윤광선학우, 부상투혼 구영일학우, 자료왕 최일범학우, 살짝 허당 김유근학우, 귀요미 서준원학우, 순수청년 방재혁학우, 살신성인 김중수님, 헌쌌보이 박병용님, 5대5가르마 정현재님, 야~쓰 아서님. 너무나너무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학년도 해외문화탐방 보고서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서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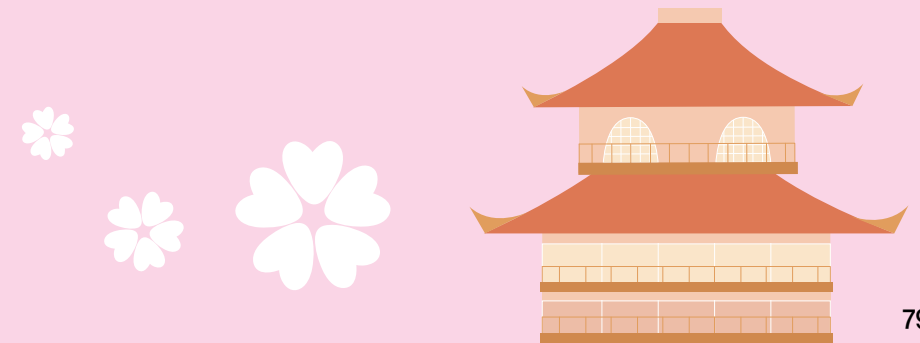
이번 해외문화탐방을 갈 수 있도록 선발해주신 학생지원센터장 한숙영 교수님과 한재일 학생지원센터 팀장님께 앞서 감사의 인사말씀부터 올립니다. 4.5초(?)의 꿈과도 같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던 해외문화탐방의 추억을 사진과 지도를 더듬어가며 회상해 보고, 머리 속에서 더 잊어버리기 전에 이 보고서를 써내려갑니다.

**6월 26일** 매우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단 1명도 빠짐없이 제 시각에 참여해서 모두 차질없이 출발해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하나투어 버스를 타고 나서 일본의 교통은 좌측통행이며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 것을 보고 일본에 온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을 다시 켜니 로밍 관련 문자가 많이 오고 지역 시각과 한국 시각이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보면서 해외에 나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쿠시다 신사(櫛田神社), 후쿠오카 구치소, 그리고 조선인 징용희생자 위령비 등 간략하게 3가지만 보는 것이었지만 지도를 보니 위령비로 가는 시간과 이후 큐슈(九州)의 남서쪽에 위치한 나가사키로 남하하는 시간까지 버스 안에서 지낸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점심은 스타미나 타로(すたみな太郎)에서 맛있는 고기를 무한리필로 먹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기와 사이드 메뉴, 칼피스와 멜론 소다 등의 탄산음료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종류도 다양해서 이번 한번으로는 전부 먹지 못하겠더군요. 기회가 된다면 또 와야겠습니다. 1일차의 호텔은 나가사키 닛쇼칸(長崎にっしょかん)으로 집들이 가득한 언덕의 윗부분에 위치한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좋았던 곳이며 방 하나에 3개의 침대가 있는 호텔입니다. 이외에 대욕장, 매점, 오락실 등의 부대시설도 있어 매점에서 티셔츠 등의 기념품을 샀습니다. 여기 호텔에서 먹었던 음식은 뷔페식이었지만 나가사키 짬뽕이 있어서 이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본격적으로 탐방이 진행되었습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미츠비시 조선소 사료관, 오우라 천주당(大浦天主堂), 군함도(軍艦島/端島) 이렇게 4가지를 보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침에 내렸던 비로 인해 선박이 결항되어 군함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일 중에 2일차가 제일 날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도착하여 그들이 미군에게 팻맨 원자폭탄을 맞았을 때의 참상과 멈추어 버린 시간 등을 보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 졌습니다.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리고 나가사키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와 노면전차를 보면서 미츠비시 조선소 사료관을 견학했습니다. 사료관 안에서 전함 무사시(武蔵)의 축소모형 등 선박에 관련된 전시품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안내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료관을 나온 뒤 사료관 정문에 서있는 야자나무들을 뒤로 하고 오우라 천주당에 가는 도중 조금씩 구름 사이로 파란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중화요리 사해루(四海樓)에서 나가사키 짬뽕 등의 요리를 먹을 때 보았던 날씨는 구름 섞인 파란 하늘이 짙게 보였던 날씨였고 마치 이 날씨로 다음날도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이 결항되어 군함도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오우라 천주당 주위의 그로바 정원(グラバー園)에서 많은 사진을 남기며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의 아이스크림도 잊혀지지 않는군요……초콜릿 맛이 짙던 아이스크림……. 군함도를 가지 못한 아쉬움을 대신해서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을 관람하고 나가사키 시내로 나와 쇼오켄(松翁軒)이라는 카스테라 맛집에 들러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하우스텐보스로 넘어가 호텔 로렐라이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여기서도 막간을 이용해 편의점을 들를 때 사진을 찍었는데 저녁노을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어서 헨나호텔(変なホテル)에서 숙박하게 되었는데 이 호텔은 말 그대로 이상한 컨셉의 호텔이었습니다. 특이점을 맞이한 듯이 로봇이 카운터를 보고 짐을 관리하고 로봇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주(MIDI음으로 연주)했습니다. 소수의 인간 관리인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을 로봇이 관리하고 객실 및 매점의 문은 얼굴 인식을 통해서 열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객실에 있는 욕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3일차**, 날씨는 다시 흐려지고 우리는 탐방을 계속했습니다. 큐슈의 북서쪽으로 향한 3일차 행선지는 타비라 천주당(田平天主堂), 아리타(有田) 도자기마을과 스에야마 신사(陶山神社), 오래된 녹나무가 있는 타케오 신사(武雄神社), 그리고 와타야 벳소(和木屋別荘)였습니다.

타비라 천주당에 들렀을 때는 잠깐동안 성지순례 모드로 다녔습니다. 여기서 헌금을 내고 기념품을 얻은 다음, 성물방에서 목주를 산 다음 아침 이 천주당에 계시는 토마스 신부님께 목주를 축성 받았습니다.

이어 아리타 도자기마을과 신사에 도착했는데 신사 밑에 철길이 있었고, 신사에 올라간 뒤 안쪽까지는 관람하지 않고 내려와 도자기마을을 다녔습니다. 마을을 걸어다니면서 도자기로 만든 작은 소품들을 구경하고 시간이 되어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은 아리타 포세린파크 안에서 카라야게 정식을 먹었고 그 후에 포세린파크 곳곳을 돌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웅장한 초빙거 궁전과 그 안의 바로크 정원이 인상깊었습니다. 그리고 타케오 신사를 들어갈 즈음 비가 많이 내려 신사 주변의 타케오 도서관에 들러서 잠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보낸 다음 타케오 신사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녹나무가 있는 곳까지 간 다음 돌아와서 와타야 벳소로 향합니다.

와타야 벳소로 가기 시작할 즈음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 사이로 햇빛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와타야 벳소에 도착한 다음엔 저녁식사 전까지 잠시 숙소 주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곳의 매점에서도 기념품을 샀습니다. 옷이나 모자 등의 의류도 좀 보이고 과자나 주류 등의 음료도 보이고 온천에 비치되었던 샴푸도 보였습니다. 여기엔 노천 온천과 함께 동시에 사우나가 있는 한국의 목욕탕과 흡사한 대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아침 6시, 노천 온천에서 목욕을 할 때 맑은 하늘이 보여서 이제 좀 맑은 날씨로 종일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식사를 하고 짐을 챙겨 버스를 탈 때에 다시 날씨가 흐려졌고 야나가와에서 뱃놀이를 할 때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심으로 장어 나베를 먹으러 후쿠센소(福泉操)에 갔을 때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4일차**의 일정은 야나가와 뱃놀이, 다자이후 천만궁(太宰府天満宮)과 큐슈 국립박물관, 후쿠오카 타워를 관람한 뒤에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호텔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뱃놀이를 40분 정도 즐겼는데 마치 베네치아처럼 배가 다니는 길의 좌우에 집 등의 건물들이 있었고 이 집에서 옛날엔 빨래를 하러 배가 다니는 물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뱃놀이를 하는 동안 노 젓는 사공이 부르는 노래로 일행들이 신나게 되었고, 사공이 한국어를 어디서 배워 왔는지 잘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버스 주차장에서 다자이후 천만궁까지 가는 거리에 많은 가게들이 있었고, 다자이후 천만궁 근처에 큐슈 국립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일본의 역사를 차례차례 보여주는 전시장을 둘러보았는데 마치 선사시대에서부터 보는 한국의 역사와 조금은 비슷한 느낌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다르게 발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을 다 본 뒤에 버스로 오는 길은 무척이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후쿠오카 타워로 온 뒤부터는 우리 일행 이외에도 다른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보였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 한눈에 후쿠오카를 내려다보고 그리고 전망대 한 곳에 주렁주렁 달린 단자쿠(短冊)가 있어 거기에 소원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마침 갔던 날이 타나바타(七夕)를 앞둔 날이어서 이런 이벤트를 했나 봅니다. 저녁식사는 호텔에서 하지 않고 이시쿠라(いしくら)에서 카와라소바와 스시 등을 먹었는데 딱딱딱하게 구워진 메밀 소바의 식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힐튼 호텔에 도착한 뒤 호텔 주변의 마크이즈 쇼핑몰에 들러서 쇼핑을 했습니다.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캐널시티 하카타에서 쇼핑할 시간이 부족할 거라 생각해 마크이즈 가실 분들 모아서 같이 쇼핑을 하러 갔고, 21시 폐점하는 시간까지 있다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4박5일 해외문화탐방의 마지막 날, 그리고 6월의 마지막 날…….

이제는 큐슈의 북동쪽, 시코쿠(四国)의 문턱까지 올라가 봅니다. 시모노세키(下関)에 위치한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아카마 신궁(赤間神宮), 카라토 시장(唐戸市場), 그리고 코쿠라(小倉)로 와서 코쿠라 역에 위치한 샤브요(しゃぶ葉)에서 샤브샤브 점심을 먹고 야하타 제철소(八幡製鉄所)를 방문한 뒤 후쿠오카로 돌아와 캐널시티 하카타에서 쇼핑하고 후쿠오카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러 나올 때까지 잠시 모모치(百道) 해변에 바람을 쐬러 다녀왔습니다. 호텔에서 떠나서 버스는 시모노세키로 향하고, 시모노세키에는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와 아카마 신궁, 카라토 시장이 인접한 곳에 붙어있어 오전 시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카라토 시장은 실내에 있는 수산시장으로 여기에서 생선이나 튀김 등의 음식을 사서 중앙 혹은 바깥의 바다가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즉석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름은 끼었지만 날씨가 나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저 돌아갈 때도 날씨가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샤브요에서 먹었던 점심도 꽤 맛있었습니다. 무한리필로 샤브샤브를 시킬 수도 있고 면 종류의 음식은 샤브샤브에 넣거나 곧바로 카레 등의 다른 것에 찍어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칼피스나 멜론소다 등의 탄산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샤브샤브에 고기가 들어간다면 소고기만을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있었고 돼지고기로도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하타 제철소를 견학한 뒤 약 1시간 반 정도 캐널시티 하카타에서 쇼핑 시간을 가지고 저녁식사를 하러 간 곳은 후쿠오카 공항 주변의 카마동(釜どん)이었고, 여기서 스키야키를 먹으면서 이제 곧 일본에서 떠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야하타 제철소에 있을 때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비는 캐널시티에 있을 때도 많이 오더니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리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4박5일간의 해외문화탐방 중에서 제일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까지도 후쿠오카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밤 10시 넘어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 안개가 좀 끼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에 안전하게 착륙해서 모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처음 2006년 아키타(秋田)에 간 이후로 13년만에 두 번째로 갔다 오는 것입니다.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다만 다르다면 아키타에 갔을 때는 내륙 지방으로 가서 산을 좀 많이 보고 바다를 못 봤다면 이번에 규슈를 갔을 때는 후쿠오카,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등의 지역에서 바다를 실컷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갔던 곳에서 골라서 다시 한 번, 혹은 도쿄 등 못 가봤던 일본의 또 다른 곳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담이지만, 2일차 나가사키 오우라 천주당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소풍을 온 초등학교생들이 내려올 때 한 초등학교생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韓國人悪い”(한국인 나빠) 이 아이는 대체 한국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나 혹은 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과거 여과없이 받아들인 반일감정과 비슷하게……. 해외문화탐방에서 귀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라 많이 안타까운데요, 일본 아베 내각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했던 것 그리고 이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간에 반일 및 혐한 감정이 악순환된다면 저희가 이번에 다녀왔던 해외문화탐방이 마지막 일본 방문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국할 때 기내에서 보았던 뉴스에서 트럼프가 판문점으로 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귀국 후 들려왔던 판문점에서 각국 대표 3인이 비록 판문점 안이었지만 남북을 오갔다는 소식으로, 그저 저는 남북미 간의 갈등이 누그러진 것처럼 이번의 한일 간의 불미스러운 갈등도 잘 해결해서 모든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 “부끄러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일본의 속마음

—일본 규슈지역 세계문화유산(산업유산)을 찾아서

한국어학과  
구영일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오늘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오늘의 한일관계는 폭풍전야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2018년 11월. 일본정부는 이 판결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며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다. 바로 이런 첨예한 시기에 미쓰비시 방문이 어찌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내에겐 일본 규슈지역을 3차례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첫째는 단체를 인솔해 나가사키 지역 방문이었고, 둘째는 부산에서 선적한 한국 꽃수출의 물류를 따라 하카타 항에서 도쿄까지 여정이었다. 이번 세종사이버대학교 주최 해외문화탐방은 세 번째로 한일 양국의 근대역사를 둘러싼 속살을 바라보는 의미있는 탐방이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의 2019년도 해외문화탐방(2019.6.26.~30, 인솔자 한숙영 학생지원센터장) 단원들은 일본 규슈지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돌아봤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근대화 산업유산 군’의 일부를 찾아본 것이다. 널리 알려지다시피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유산의 성격이 혼합된 복합유산 등 3가지의 유형이 있다. 특히 규슈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은 근대의 것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많다. 일본은 2009년 1월 5일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규슈·야무구치 지역의 ‘근대화 산업 유산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했다. 2015년 7월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신청한 하시마 탄광, 기타큐슈시의 야하타 제철소 등 메이지 시대 일본 산업혁명 유산 중 23개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 근대산업유산이라는 일본이 내세우는 달콤한 포장 속에, 우리 선조들의 강제 징용의 피와 땀이 스라린 상처로 남아있는 현장을 찾는 탐방이었다.

인솔단장 한숙영 교수는 탐방 도중 “한국이 아무리 일본에게 아무리 사과하라고 해도, 일본인의 마음속에 사과의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나가사키 원폭자료관과 한국인 추도비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은 히로시마 원폭돔이다. 널리 알다시피 두 개의 원자폭탄이 일본을 폭격했다. 하나가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또 하나가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히로시마 원폭 돔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나가사키는 원폭자료관으로 남아있다. 대신 나가사키에는 국립 나가사키원폭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과 나가사키시 평화회관을 세워 원폭 피해지역 임을 알리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 거리 사진을 통해 피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시 나가사키 인구는 24만 명, 이중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자는 사망 7만 3,884명, 부상자 7만 4,909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에 한국인 피폭자도 2만 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원폭자료관 뜰에 세워진 작은 규모의 추도비는 1979년 8월 9일 나가사키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회에서 세웠다. 추도비의 안내문에는 영문과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 적혀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0년 조선을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배에 두었고...(중략)... 일본에 강제연행으로 끌려와 강제노동을 당한 조선 사람은 1985년 8월15일 236만5,263명으로 나가사키 현에는 약 7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쓰비시 계열의 조선소, 제강소, 전기, 병기공장과 도로, 방공호, 군수, 공사장 등 토목공사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었는데, 원자폭탄 투하에 약 2만 명이 피폭 당하였으며, 그중 약 1만 명이 목사하였다. 우리들(나가사키 재일조선인)과 이름 없는 일본사람들이 이곳 나가사키에서 비참함 생애를 보낸 1만여 명의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추모비를 건설하였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일본의 국체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란 세계 전쟁의 주범이면서도 원자폭탄에 피해를 입은 최초의 인류. 원자폭탄 피폭 도시와 평화공원, 원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해자에서 재빨리 피해자로 둔갑하는 모습을 일본은 보여준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는 피폭 조선인과 이들을 위한 반성이나 죄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료관 뜰 앞에 추모비가 있다. 추모비를 찾는 길에 비는 부슬부슬 내린다. 길옆으로 조선인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꽃 한 송이 준비 못한 손이 몹시도 부끄러웠다. 이다음 다시 찾는다면 추모비 앞에 꼭 꽃송이를 바치고 오겠다.

### “부끄러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

#### - 나가사키 조선소 자료관 :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다. 우리 탐방단 일행은 군함도를 들르기 전 나가사키 조선소 자료관을 들렀다. 군함도(하시마)탄광을 관리하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시발점이 이곳이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강제징용을 통해 전쟁 물자를 만들며 군수재벌이 된 전범기업 미쓰비시, 가미카제 특공대의 전투기와 일본의 자랑거리인 전함 ‘무사시(武藏)’가 건조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역사에 대해 홍상현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90년 나가사키의 영주 나베시마 마고로쿠로는 한 민간 기업에 탄광이 있던 작은 섬 하시마(端島)의 소유권을 넘긴다. 당시 거래 금액은 10만 엔. 이 섬은 약 30년 뒤 해군 순양함 ‘도사(土佐)’를 연상시키는 노동자 집단 주거시설로 변모한다. 바로 ‘군함도’라 불리게 된 ‘초대형 굴라그(Gulag)’의 시작이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스러져갔다. 이 모든 일에 직접적인 책임은 지금도 일본 재계 굴지의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그 핵심 생산기지인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이하 ‘나가사키 조선소’)에 있다. (홍상현, 군함도의 가해자 미쓰비시 중공업의 오늘, <시사in>, 2017.7.31.)

과거 일본이 벌인 침략전쟁의 대표적 부역 세력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얼마나 큰 역사의 아이러니 인가. 일본 패망 직후 3개 회사로 분할된 미쓰비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에 의해 동일본중공업은 미쓰비시 일본중공업, 중일본중공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서일본중공업은 미쓰비시 조선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군수 이외에도 에너지, 항공, 우주 등 다양한 첨단 분야로 확대돼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홍 기자에 따르면 미쓰비시 그룹은 자사 홍보 페이지에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책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국책이 명하는 바에 따라, 국민으로서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서, 돌이켜보았을 때 부끄러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생각은 일본인의 본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찾을 길 없다. 전범기업의 “부끄러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의 입장은 경제보복으로 바라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7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미쓰비시가 항공기 제작소, 조선소, 탄광 등에 동원한 한국인만 10만 명. 이들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생존한 징용자들이 “하루 10시간 맨 손으로 항공기 부품을 닦는 일을 했다. 식사는 하루 한 끼 밥 한줌과 감자 한 개, 단무지 두 개가 전부였다”고 증언하고 있다.(2013.10.4. 광주지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정증언)징용 피해자들의 개인배상을 요구하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 즉 한국의 구상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리됐어도, 개인 배상 구상권은 남아있다고 판결했을 때, 경제보복을 취하는 일본의 뒤틀린 심사를 짐작할 수 있겠다.

### 아쉬움에 그친 ‘군함도’ 상륙

일본은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하시마 탄광, 일명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즉각 반발했다. 일본이 포함한 23개 시설 중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었던 7개 시설에 대해 강제노동 사실을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이 7개 시설은 하시마 탄광을 비롯해 나가사키 조선소(대형크레인 등 3곳), 다카시마 탄광, 미이케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들에 동원된 조선인은 5만 7,900명에 이르고 동원된 조선인 중 사망자는 94명, 행방불명자는 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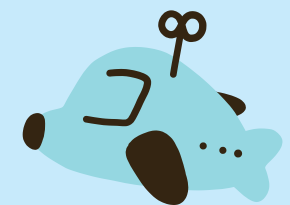
일본은 앞서 하시마 섬 등이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의 증거물이라고 주장하며 문화유산 등재기간을 1850~1910년으로 한정해 강제징용에 대한 별도의 역사적 기술 없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시도했다. 1940년대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제외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를 덮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도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명시하기로 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국제무대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2015년 7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산업유산 시설에 조선인 동원문제가 “강제징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많은 식민지 주민들과 전쟁 포로들이 군함도에 강제 징용되어 끌려왔다. 그 중 조선인은 징용 및 요시다 합숙소 노동자가 포함 500~600명 정도였으며, 자의로 온 조선인 노동자가 추가적으로 80명 정도 있었다. 이 사실은 영화 <지옥도>에서 영화화 됐으며, 소설가 한수산의 <까마귀>로 소설화 돼 실상을 알렸다.

그러나 군함도를 방문하기로 한 6월 27일 아침부터 비가 뿌렸다. 불길한 예감은 꼭 들어 맞는다. 점심을 먹고 나니 태풍급 강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거세 배가 아예 출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 날도 배가 출항할지 안할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훗날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대신 시내의 군함도 체험관으로 대신했다. 나가사키 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앞바다에 위치한 하시마는 작은 해저 탄광섬으로 고층의 철근아파트가 늘어난 외관이 군함을 닮았다고 군함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현재도 약 절반정도의 건물이 남아있다. 1986년 일본의 시민단체인 ‘재일 조선인의인권을 지키는 모임’에서 자료로서 제시한 화장대장인허증에 따르면 1925년~1945년 사이 하시마 탄광에서 총 1,295명이 숨졌으며 이 중 조선인은 122명이었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는 구글에 군함도 관련 거짓 광고를 내고 있다.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연행돼 자유를 빼앗기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본인이 하지 않는 노동에 종사되고 학살당했다는 주장이지만 현실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군함도 조선인 강제 징용은 날조라고 광고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튜브에 광고를 올려준 구글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최근 군함도를 방문했던 서 교수는 “2015년 일본 정부에서 약속한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은 군함도 관련 거짓 영상광고를 다시는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SBS뉴스, 권태훈 기자, 日 군함도 거짓 광고 불허해야... 서경덕 구글에 항의, 2019. 6. 21)

### 야하타 제철소 :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아직도 일본의 척추인 신칸센의 철로와 열차를 만드는 곳.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일본의 체철·제강 산업의 근원지다. 한국어판 팸플릿에는 “일본은 서양 이외의 국가 중 첫 산업혁명을 수용하여 50여년 만에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화를 성취하였습니다.”고 자랑한다. 조선에서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와 노역을 시킨 사실들은 쏙 빼고 일본이 잘나서 그리 됐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일본의 근대 산업혁명유산인데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관람객을 철저히 막고 있다. 온통 철판 벽으로 둘러싸고 사람 다니는 통로만 열어 놓았다. ‘일본의 근대 체철을 짚어 온 세기를 초월한 유산’이라고 큰소리로 자랑만 하지, ‘실제 어디 좀 봅시다’ 하고 찾아가니 야하타 제철소의 옛 사무소 건물이 비스듬히 보이는 곳에서 사진 찍는 것만 가능하며, 정해진 장소 외에는 찍을 수도 없도록 해놓았다.

누가 과거를 모르는가. 청일전쟁이 끝난 후 청국의 전쟁 배상금으로 지어진 제철소라는 사실을... 1894년 여름, 한반도의 권익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청나라와 일본은 전쟁을 치렀고 일본이 이겼다. 일본은 청국에게 아주 가혹한 조건을 제시해 2억 냥 지불을 약속받았다. 이 배상금으로 지은 제철소가 바로 야하타 제철소다. 앞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화를 어찌구 저찌구” 빼기면서 뒤로 구린데가 있으니 대문도 활짝 못 열고, 안쓰는 건물하나 그것도 먼 발치에서 보고 그냥 가란다.

### 역사의 가정, 한반도-남일본-북일본

이번 문화탐방은 미쓰비시 기념관, 야하타 제철소, 군함도, 청일 강화기념관 같은 한일 근대 역사유적지를 돌아본 의미있는 탐방이었다. 일본은 지리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의 문화학자 베네딕트는 일본문화를 ‘국화와 칼’로 풀이했지만, 일제 강점기를 겪은 한국인에게서는 거꾸로 ‘칼과 국화’로 기억하는 것이 더 논리에 맞는 것 같다.

만약에 말이다. 미국의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가 아니라 당초 폭격 예정지였던 군수공업지역인 야하타 제철소 지역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일본의 군수산업은 망가지고, 미국도 전쟁과 관계없는 무고한 시민을 폭살했다는 불명예를 짚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단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판단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주범국인 일본을 남북으로 가르고, 한반도를 온전히 두기로 했다면, 6·25 같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일본을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우리나라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쯤 한국과 남일본, 북일본 3국이 국토와 인구의 균형이 맞춰 졌을 것이다. 더더구나 ‘부끄러울 일 없다’는 일본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이를 확대 전파하는 우익이 출현하지 못했고, 한반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 일찍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지리멸렬하게 끌어오지 않고 진작 해결됐을 것이란 상상을 해 본다.



## 단 하나의 씬, 아름다운 동행

한국어학과  
김인숙

6월 15일(토) 15:00 무방관에서 2019학년도 해외 문화탐방 발대식을 시작으로 설렘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햇살이 유난히도 투명한 날,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강릉→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는 펼쳐지는 노을은 눈부시고 아름다웠다. 6월 25일 인천공항 저녁 8시경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터미널에 위치한 캡슐호텔에 숙박, 다음날 26일 새벽 05:30 인천공항 H 카운터로 발을 옮겼다. 첫 만남, 학우님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일본의 4박 5일간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2019.6.15. 발대식



2019.6.25. 인천공항 가는 길



2019.6.26. 인천공항 가이드 미팅

2019년 6월 26일(수) 1일차

KE 787편 08:00 인천공항 출발하여 약 1시간 25분 소요, 09:25분경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 도착 드디어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다. 깔끔한 도시가 인상적이다, 2층 기와집의 일본의 전통적인 가옥과 7월 중에 성대하게 축제가 열린다는 하카타 기온 야마가사 가마 장식도 눈에 띈다. 29인승 버스와 친절한 운전기사분이 반가운 웃음으로 반겨주셨다. 가이드의 진행으로 실례합니다. “쓰미마성” 생활 속 일본어를 배워보며 웃음꽃이 만발한다. 첫 방문한 곳은 쿠시다 신사라는 곳이다. 이곳은 기온 야마가사라는 일본 3대 마츠리 중 하나의 중심지인 신사이며, 기온 야마가사는 무형 민속 문화재라고 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33미터 둘레는 16미터의 커다란 은행나무가 눈에 띈다. 이곳에서 물 마시는 법도 배웠다. 왼손을 씻고, 오른손을 씻은 후 마지막 남은 물을 손에 담아 마시는 순서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맛있는 아끼니쿠 뷔페 점심을 마치고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동했다. 그 주변에 위치한 구치도 역시 엄숙한 분위기로 그 주변을 돌아보았다. ‘서시’의 작가 윤동주 시인이 수감되었던 스물일곱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구치소이다. 마음이 숙연해졌다. 한국의 문학을 배우는 나로서는 만감이 교차했다.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는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를 보면서, 나라에 대한 애향심과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애도하며,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나가사키 시에 위치한 일승관 호텔로 이동하여 달콤한 잠을 청했다.







2019.6.26. 쿠시다신사



2019.6.26. 쿠시다신사 손 씻기



2019.6.26. 조선인 징용 희생자 위령비

2019년 6월 27일(목) 2일차

눈부신 햇살이 친구 되어 상쾌한 아침을 열었다. 호텔 조식을 마치고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 상공에서 한 발의 원자폭탄이 터져, 많은 인명피해와 나가사키 도시가 거의 파괴되었고, 피폭 자료와 피폭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가사키 시에 위치한 세계유산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시료관을 방문하여 배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 조선소는 1857년에 일본 최초의 함선 수리 공장 나가사키 용철소로 탄생했다고 한다. 다음 장소는 “군함도 관람” 아쉽게도 기상악화로 배가 출항하지 못해 일정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군함도에 관한 자료관에 들러 VR 체험을 하며 강제징용되었던 군함도 그 현장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2층 복층 구조로 이루어진 커피숍과 도서관이 멋진 만남,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 잘 조화된 도서관이 매우 인상 깊었다. 커피향 가득한 커피숍에서 책 한 권과 마주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어 300년을 이어가는 일본 제일의 장인정신이 깃든 카스텔라와 홍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긴다. 그렇게 소원이었던 나가사키 짬뽕을 맛보았다. 소원성취~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산책로를 지나 푸르른 초록 나무들 사이로 햇살을 받으며 걸어갔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오우라 천주당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순교한 26인의 성인들을 봉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천주교회로서 1864년 프랑스 신부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한다. 이곳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벽돌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이동했다. 일본어로 “헨나 호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상한 호텔”이라고 한다. 이 호텔은 세계 최초 로봇호텔로, 안드로이드 로봇이 손님을 맞이하며 체크인 수속, 숙소 안내 등 70%를 자동화 서비스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한다고 한다. 곤한 잠을 청했다.



2019.6.27.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2019.6.27. 군함도 VR체험



2019.6.27. 카스텔라와 홍차

2019년 6월 28일(금) 3일차

오늘은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호텔 조식 후 우산 하나를 챙겨 들고, 다음으로는 타비라 천주당 성당의 웅장한 외관과 내부 모습에서 묻어나는 신성함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의 조화로움 속에 자연의 경관이 웅장하게 느껴진다. 다음으로 간 곳은 아리타 도자기 마을, 일본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예쁜 도자기의 장인 정신이 묻어나는 도자기 하나하나를 구경했다. 다음은 도공 이삼평을 기린 곳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도공 이삼평을 기린 이삼평비와 도산 신사를 볼 수 있었다. 이어 타케오 신사에 있는 3,0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녹나무를 볼 수 있었다. 다케오 시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라고 한다. 길옆에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는 대나무 숲과 오랜 세월 끈기 있게 자란 녹나무를 보면서 곳곳하게 풍파를 겪어낸 녹나무의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와타야 벙스 호텔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일본 여행의 꽃 온천욕을 즐겼다. 노천탕에서 학우님과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정다운 시간을 이어갔다. 역시 우리 나이엔 뜨거운 온천욕이 제일 좋지 않은가? 피부가 보들보들해졌다. 내일 아침이면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2019.6.28. 청화자기로 만든 도자신사



2019.6.28. 아리타 도자기마을



2019.6.28. 일본 전통의상 유가타를 입고

2019년 6월 29일(토) 4일차

간간히 비 내리는 흐린 날씨가지만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일본 노래, 한국 노래로 열창하는 뱃사공에게 박수를 보내며 야나가와 뱃놀이를 신나게 하루를 시작한다. 학문과 문화의 신을 모신 학업성취 비석이 눈에 띈다. 다자이후 텐만구는 다자이후 에 905년에 건립된 곳으로 현재 본전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어 큐슈 국립박물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다양한 규슈지역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아시아와의 교류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다음은 모모치 해변, 밤이면 더욱 아름다운 해변 공원, 연인들의 축제 거리를 마주했다. 이어 시사이드 모모치 해변에 위치해 있는 높이 234M의 정삼각형 타워로 1988년 후쿠오카시 제정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전망대는 116,123m 올라가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전망대에서 바라본 일본 전경은 감탄과 환호성이 흘러나왔다. 다음은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호텔로 이동하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멀지 않은 호프집에서 못다 한 이야기, 서로의 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여행의 분위기를 한층 업 시켰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주변에는 신건물이 들어서 밤 야경을 즐기며, 일본에서의 멋진 마지막 밤을 보냈다.



2019.6.29. 후쿠오카 야나가와 뱃놀이



2019.6.29. 카와라소바(석식)



2019.6.29. 시원한 맥주 한 잔 캬~





2019.6.30. 아카마신궁



2019.6.30. 카라토시장 해변



2019.6.30. 포토제닉상

2019년 6월 30일(일) 5일차

이곳은 우리나라와 연이 깊은 아카마 신궁이다. 1185년에 건립되어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아카마 신궁은 8살 나이로 요절한 안도쿠 왕을 모시는 신궁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조선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고, 빨간색 문을 상징적인 게 특징이다. 다음으로 간 곳은 카라토 시장에 도착하여 복어가 유명하다는 시장에 들러 현지에서 먹는 참치회,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 일품이었다. 시장 주변으로 바닷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그 길을 따라 바다 바람과 조화로움을 이루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다음 이동한 곳은 아하타 제철소(구 전망대), 다음 장소는 캐널시티 하카타에서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쇼핑센터 방문이다.

후쿠오카의 하카타에 자리하고 있는 캐널시티는 '도시 극장' 형태로 지어진 복합 문화 공간이다. 다양한 상점과 식당들이 모여 있어 후쿠오카 사람들의 미식, 생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캐널시티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주제를 바탕으로 한 공연이나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또한 일정 시간마다 분수 쇼를 진행하여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화려한 조명과 꽃으로 꾸며진 광장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주어진 자유시간이 모자랄 만큼 쇼핑을 즐겼다. 쇼핑을 마치고,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하며, 4박 5일 일정 동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여행 중 가장 멋진 사진을 선정하여 포토제닉상을 시상한다는 팀장님의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출품한 작품이 포토제닉상? 불협화음속의 하모니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품은 멋진 부채다. 기분 Up Up 그렇게 4박 5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일본과의 이별을 청해야만 했다. KE782 편 21:05 후쿠오카 국제공항 출발 약 1시간 30분 소요. 23:35분경 인천공항 도착했다. 이번 해외 문화탐방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견문(健門)과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적극 지원해주신 "세종사이버대학교"에 감사드린다. 학생지원센터장님, 팀장님, 영상제작팀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학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외탐방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감사히 마음과, 특히 학생지원센터 팀장님, 교무처에 함께 오신 팀장님, 학우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모습을 보면서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문화탐방을 계기로 일본의 자연환경과 생활, 사회, 문화에 관심을 높이고,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국제적 마인드와 국제적 소양을 갖추고, 더욱 폭넓어진 문화적 경험을 발판 삼아 글로벌을 이끄는 한국어 교사의 꿈을 위해 오늘도 정진할 것이다.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아름다운 동행"은 그렇게 끝이 났다.



2019.6.29. 세종사이버대학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제4회 세종사이버대학교 해외문화탐방



## 잠시 꿈을 꾼 듯..다녀 온 일본 탐방

한국어학과  
박미희

고령화 시대라는 말에 밀려서 이제 나도 그 고령화라는 나이에 근접하고 보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늦은 나이에 공부에 욕심을 냈다. 명문 세종 사이버 대학에 편입을 하고 그에 따른 강의도 듣고 시험도 보고 1년을 보내고 나니 그 1년이 주경야독으로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던 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웠다. 때로는 밀려오는 회의에 방황도 많아 언제나 이단아 같은 맘으로 지난 편입 1년을 학생인 듯 아닌 듯 버텼다.

일본을 간다는 해외문화유산 탐방단 모집이 났을 때 가슴이 뛰었다. 더구나 나가사키라니.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사서가 되고 나서 우연히 읽었던 만화가 있다. 맨발의 겐이라는 만화인데 원폭피해를 입은 일본 내 히로시마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원폭을 입은 사례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그들이 가없어서 또 전쟁이 무서워서 어른임에도 영영 울었다. 그리고 그때에..일본 국민들도 좀 다른 느낌인긴 하지만 우리 국민처럼 세상의 피해자인 것을 조금 알게 되었다.

당연히 모집에 응시했고 선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던 날은 정말 행복했다. 우리의 여정 동안이 일본의 장마기간이라는 말이 좀 꺼림직 했지만 메시지 받던 날에 이미 내 맘은 우산 챙기면서 일본을 향하고 있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여권을 보내고 일정이 나옴 발대식을 하고 나서 우리 일행은 4박 5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처음 방문한 곳은 일본 헤이안 시대의 유서 깊은 "쿠시다 신사"라는 곳이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일본풍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를 들고 달리는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그 행사보다도 이른 일정이어서 관여된 어느 것도 볼 수는 없었다. 또 이곳에 명성왕후를 찢러 죽인 칼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역시나 확인은 불가하고 소문만 무성한 듯 하다. 내게는 늘 사진으로만 보던 일본의 전형적인 신사 이미지 그 자체여서 나름 흥미로웠다.

중학교 때 처음 접한 문학에서 첫 번째로 읽어 잊히지 않는 시가 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로 시작되는 "서시"이다. 지금도 감정이 고조되는 날이거나 아니면 혼자인 날에 읊조리는 시이다. 그 시를 지은 윤동주가 옥사한 곳 후쿠오카 형무소 외부를 보았다. 본 적은 없는 분이지만 가슴이 뭉클함은 내 나라 동포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들른 곳은 조선인 징용 위령비가 있는 곳이다. 타국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조국은 또 얼마나 그리웠을까..마음이 찢기우는 고통이 슬픔과 함께 내게도 스며들었다. 이런 맘으로 아직도 남은 여정이 많은데 잘 견뎌질 수 있을까.. 첫날부터 맘이 분산되어 어지러워짐을 느꼈다.







숙소에서도 여운으로 힘든 첫날이었다. 우리 동포에 대한 역사들을 직접 와서 보니 말로 들었던 것보다 더 생생하게 느낌이 왔다. 그리고 다음 날은 은근 기대했던 날..군함도 가는 날이라 마음이 들떴다. 우리 동포들이 강제 동원되고 징용되어 일한 곳. 인간 이하로 살았던 곳. 그럼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 최근엔 동명으로 영화가 나왔기에 정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일정이 취소되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라도 나면 안되기에 기꺼이 취소했지만 좀 서운하긴 했다.

하지만 원폭자료관에서 원폭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어 좋았다. 원폭이 터진 날 그 시각에 멈춘 시계와.. 실물크기 원자탄이 인상적이었다. 원폭의 투하부터 현재까지 스토리를 갖추어 전시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부흥을 위한 노력은 현재의 일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같다.

탐방 중에 흥미로웠던 것이 있다. 일본의 국보로 지정 다는 곳..오우라 성당이다. 우리가 방문하던 시간은 날씨가 보기 드물게 쾌청하여 맑은 하늘과 어우러진 성당은 우리를 유럽에 온 듯한 기분을 주었다. 내가 일본인에게 느껴지던 보수적 냄새가 아닌 고유 문화 아닌 서구적인 건축물을 국보로 지정한 것이 내겐 의외였다.그리고도 이 일정에서 돌아보니 참 많은 곳이 기억에 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규슈 국립박물관이다.규모로는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연 속에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를 설치하여 힘들지 않게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배려가 느껴져 정말 감동받았다. 더구나 한국 관광객을 위한 한국어 팸플릿과, 완벽하진 않지만 오디오 가이드는 부럽기만 했다.

또 하나 사서로서 내게 이번 여행이 준 즐거움은 서점과 연결되어 있던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 한 것이다. 인적이 드문 곳에 그렇게 시설 좋은 소규모 도서관이 있으니 나는 부럽기만 했다.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일본의 미래를 작게라도 본 것 같기도 하다.

과거에 한 일이 미워서 통탄하고만 있기엔 일본은 우리에게 너무 큰 나라이다. 분명 배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탐방을 끝내며 내가 가지게 된 결론이다.

나는 일본이 우리에게 한 행위들과 우리를 대했던 지난 날들에 대해 미워도 하겠지만 이들에게서 취할 것을 아주 많이 취하고 싶다.

